작 품 집

의 무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 례

단편소설

믿 음 ……(3)

의 무 …… (60)

시

대청땅은 길이 전해가리라

(외 1편) …… (85)

선생님 추억(외 1편) …… (91)

이 땅을 사랑하라!(시초) …… (97)

너의 이름을 …… (109)

할머니의 전설 …… (111)

우린 한글육(외 1편) …… (113)

수필

고마운 우리 집 …… (115)

새 가정의 계획 …… (119)

대추나무를 심으며 …… (124)
박 꽃 …… (132)
통일을 기다리는 족보 …… (140)

【단편소설】

믿　　음

김 철 진

1

《뭐, 상임위원회 리극로부위원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행패질을 했다구?》

국가검열성 부상 권승훈의 두눈이 화등잔만해졌다.

《그렇습니다, 부상동지. 걸상을 들부시고…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와서 료해해보십시오.》

물질문화보존위원회 위원장 차정국은 얼굴이 벌개가지고 입에 힘을 주며 말했다.

대머리에 성글게 붙어있던 몇오리의 머리카락들이 볼품없이 흐트러진 권승훈은 얼떠름해서 물었다.

《대체 어찌된 일이요?》

《부상동지, 리극로부위원장이 글쎄… 제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우리 위원회의 사무실에 들어와

욕질을 해대며 걸상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아래 사람들이라고 무시해도 유분수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어찌나 분기등등했던지 차정국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들고 볼살은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그러는 그를 어리둥절한 눈길로 지켜보던 권승훈이 어느새 웃사람다운 너볏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아, 또 흥분하누만. 아직도 피스톨을 차고 상해거리를 떠돌던 때의 혈기를 버리지 못했단 말이야. 차동무, 인젠 한개 단위를 책임진 간부인데 적잖은 세월 함께 투쟁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처신이 좀 듬직해야지.》

등을 두드려주는듯한 옛 상전의 목소리에 되려 기가 오르는지 차정국은 목청을 더욱 돋구었다.

《부상동지, 너무 분해서 그럽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온 나라가 복구건설로 눈코뜰새가 없는데 자식을 데리구 모란봉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산보나 하는 량반이 무슨 큰 애국자나 되는듯이 행세를 하려드니 내 참 눈꼴 사나와서… 나라의 큰 간부로서

이게 과연 옳은 처신입니까?》

이제껏 아량을 보이며 차정국을 다독이던 권승훈의 얼굴이 이그러졌다.

《여보, 언제면 말을 이쪽저쪽으로 널어놓는 그 버릇을 고치겠소? 산보란건 대체 뭐요? 좀 똑똑히 말하오!》

권승훈의 쌍까풀진 커다란 두눈이 노여움으로 번뜩거렸다.

《미안합니다, 부상동지. …정오가 좀 지나서 리극로부위원장동지가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서길래 인사를 하는데 글쎄 대번에 앞에 있던 걸상을 들어서 내팽개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제 본분도 지킬줄 모르는것들이 무슨 렴치루 청사부터 번듯하게 꾸려놓았는가고 된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란봉을 제대로 꾸려놓기 전에는 아예 밥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놓구 갔습니다.》

《그가… 모르겠소. 고작 모란봉을 꾸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 정도로 과격하게 나왔단 말이요? 이젠 환갑도 넘은 늙은이가…》

혼자말 같은 권승훈의 목소리는 분명 강한 의문

이 실린 억양이였다.

《예에? 제가 그럼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부상동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억울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위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모란봉을 비롯해서 전국의 유적유물들에 대한 관리상태가 원만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지 인제 겨우 두해째가 아닙니까. 터놓구말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반토굴에서 채 나오지 못했는데 어느 하가에 유적이니, 유물이니 하는데 신경을 쓰고있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우선 산 사람들부터 생각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 눈을 꾹 감고 청사건설에 왼심을 쓴건 사실입니다. 그랬다구 적잖은 간부가 그렇게 행패를 부려야 속이 시원하단 말입니까. 부상동지두 길길이 날뛰던 그 기상을 봤으면… 에이—》

차정국은 두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소리치던 리극로의 모습이 상기되는지 진저리를 쳤다.

《부상동지,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회의 숱한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 뛰여들어왔겠습니까. 이런 관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원칙성이 강한 량반이 이 바쁜 때 류학갔던 아들이 귀국하자바람으로

모란봉부터 데리고 올라가서 산보나 한단 말입니까. 에익, 케케묵은 인테리겐찌야같으니!…》

몸에 푹 배인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쓸어넘기던 권승훈의 손이 정수리에서 멈추어섰다.

《여보, 아무리 격했기로서니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마구 감투를 씌워서야 되오?》

차정국도 지려 하지 않았다.

《부상동지, 어림짐작이 아니라 제 다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으응?! 흥, 없던 버릇이 생겼구만.》

어조는 낮았으나 권승훈의 눈가에는 찬바람이 일었다. 그는 대번에 자라목이 되여버린 차정국의 모양을 귀찮게 흘겨보다가 차겁게 뇌까렸다.

《이 일은 내게 맡기고 돌아가보라구.》

《예?》

《내 말대로 하오.》

덤덤히 문쪽으로 돌아서던 차정국이 불쑥 몸을 비틀며 풀죽은 소리로 《저… 부상동지, 여기로 오기 전에 먼저… 사법성에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겨우 한마디 비쳤다.

《뭐요?! 동문 어째서 여기저기 말을 들고다니요? 아낙네들처럼… 그래, 뭐라고 보고했소?》

차정국은 입을 쩝쩝 다시고는 오른손바닥으로 가방을 낀 왼손등을 쓸어만지며 떠듬떠듬 말을 주어댔다.

《있은 사실과… 제 의견을 보충해서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쾅! 권승훈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여보, 그렇게 간부들의 소소한 잘못을 돌아다니며 보고해서 얻자는게 뭐요? 다 동무 같으면 간부들이 일해먹겠소?》

《부상동지, 전…》

《이런 일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한심하오. 됐소, 가보오!》

권승훈은 고개를 외로 돌리고 무엇인가 더 말하려는 차정국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차정국이 나가자 권승훈은 그제서야 앞에 놓인 종이를 끄당겨 글을 써내려갔다. 한참만에야 어깨를 들먹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리극로?

※ 류학을 갔다온 아들과 함께 모란봉산보…

내려오는 길로 물질문화보존위원회에 들려 행패질!

리유? 모란봉을 꾸리지 않는다.

???

자기가 쓴 글을 한동안 내려다보던 권승훈은 뒤짐을 지고 사무실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멈춰선 그의 눈가에 회심의 미소가 어리였다.

(리극로, 위기가 호기라는 말이 있지. 흠,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가. 이렇게 칼자루를 바꾸어쥐다니…)

권승훈은 가슴에 밀려드는 이름할수 없는 쩌릿함으로 두눈을 감았다.

흘러간 세월과는 무관한듯 서리찬 고성이 그의 귀전을 흔들고있었다.

…《당신 몸에도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는가!》

《말이면 단줄 알아? 이걸 놓지 못해, 교학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놔라!》

권승훈은 자신의 멱살을 부여잡은 리극로의 손을

겨우 물리치고는 품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죽고싶어?》

리극로는 바위처럼 끄떡없었다.

《흥, 총구가 무서워 입을 다무는 졸장부라면 당신을 찾아오지도 않아. 자, 어서 쏴보오! 사람의 피를 그리도 보고싶은가? 신채호선생을 감옥귀신 만들어달라고 베이징까지 찾아왔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자, 보라! 이건 당신의 자필로 된 현금령수증이다. 권승훈, 이건 당신에 대한 용모파기이구.》

리극로의 손에 쥐여진 령수증과 자기의 초상을 모사한 그림을 마주한 권승훈은 눈앞이 아찔했으나 고스란히 인정할수는 없었다.

《난 이런건 몰라! 그 취조관인지 뭔지 하는 그 자식을 내앞에 끌어다놓으라.》

권승훈은 왼손으로 증거물을 나꾸어채며 찢어버렸다.

《비겁한 자식!》

리극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총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있는 권승훈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겼다.

《아!》

권승훈은 한길이나 뒤로 자빠져 두팔을 허덕이였다.

《너는 동족을 팔아먹은 그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할것이다.》

리극로는 결연히 발걸음을 돌렸다.

《서라! 서지 못해?!》

땅! 땅!…

《음…》

권승훈의 옥다문 입에서 처연한 신음소리가 새여나오고있었다.

(리극로, 이렇게 맞다들다니…)

어지러운 추억이 권승훈의 마음을 괴롭히고있었다.

…3.1인민봉기후 상해망명정부가 조직될 당시 해외와 국내에서 모여온 각파의 대표들은 회의를 첫걸음부터 오해와 불신의 각축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임통치론》을 제창하던 리승만을 국무총리자리에 앉히는 문제가 제기되자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채호는 《리승만은 리완용이보다 더 큰 역적이다. 리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리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리승만을 국무총리로 앉히려는 놈도 모두 역적놈들이다. 정 당신들이 리승만을 국무총리로 지지한다면 나는 상해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폭탄선언을 했으며 이에 편승하여 독립운동의 소장파인물인 려운형은 상해림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시작부터 파벌싸움으로 번져가는 회의분위기를 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어느날 권승훈은 스승으로 섬기는 엠엘파의 한 중진에게 근심스레 물었다.

《신채호선생마저 상해림정을 외면하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서울에서 한다하는 려운형까지도…》

《권군, 나약한 생각이야. 리승만박사가 림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밀어줄걸세. 신채호나 려운형따위가 다 뭐야, 썩은 가지 버린 나무 푸르싱싱하리라… 흥, 내 보기엔 앞으로 신채호가 독립투쟁의 선배랍시구 기승을 부릴것 같은데…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겠네.》

《알겠습니다.》

얼결에 권승훈이 대답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수 없었다.

다음해 신채호는 베이징에서 상해림정에 또다시 머리를 들이민 리승만의 《위임통치론》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리극로와 함께 인쇄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권승훈은 곧 그 중진에게서 과업을 받았다. 그들이 적색삐라를 찍는다고 국민당경찰에 거짓고소를 하고 적어도 삼사년은 감옥에 처박도록 뒤공작을 하는것이였다.

잠시 주춤했으나 곧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그 《지시》는 집행되였다.

믿음이라는 외피로 감싸진 파쟁군들의 썩은 새끼줄을 권승훈은 놓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체포당시 리극로가 결사적으로 신채호를 빼돌렸다. 설상가상으로 뜻밖에 베이징에서 돌아온 리극로로 인해 파쟁군들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조성되게 되였다.

나중에 권승훈은 꼬리자르기의 희생물이 되여 상해림정에서 쫓겨나 주인없는 들개신세가 되고말았다.

리극로가 어떻게 류치장신세를 벗어난지는 몰라도 취조관에게 주었던 령수증과 자기 얼굴을 모사한 그림까지 그의 손에 있는걸 보면 자기가 매수했던 취조관이 도리여 리극로에게 설득된것이 틀림없었다. …

(리극로… 상해에서의 일을 내 어찌 잊겠느냐. 상해를 떠나 오랜 세월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네가 아는가. 오늘은 또…)

리극로는 권승훈에게 있어서 지나온 천야만야의 추억속의 원쑤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아스라한 존재였다.

1948년 봄에 남북련석회의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눌 때 《이제부터는 좋은 일로만 만나기 바랍니다.》라고 하던 리극로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은 공갈로 그의 가슴속에 비수처럼 깊숙이 배겨있었다. 혹시 한찰나 자기를 고발하지나 않을가 하는 두려움이 머리에서 항상 떠날줄 몰랐고 그로 인해 그앞에 서면 단숨에 뿔구부린 양처럼 되여야만했던 권승훈이였다. 헌데 지금 어쩌면 그 모든 시름을 털어버릴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것이다.

사실 권승훈은 좀전에 차정국이 이 문제를 사법성

에까지 상정시켰다고 했을 때 내심 쾌재를 올렸다.

하지만 내놓고 자기의 의도를 표출시킬수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있는 그를 향해 직접 돌을 던질수 없는것이다.

(하기야 일이 어찌되든 차정국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 하는수없이 끌려들었노라고 모든 책임을 밀어붙이면 그만이렷다. 차정국, 어쨌든 고맙네.)

권승훈은 관자노리를 툭툭 들이치며 피줄을 타고 솟구쳐오르는 희열의 기운을 느낄수 있었다. 그는 장단에 맞추듯이 흥그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상동지.》

《국장동무요? 조사조를 무어야겠소. 지금 당장… 처장동무를 데리고 이제 곧 내 방으로 오시오.》

2

리극로의 사무실앞에 서있는 권승훈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떠나올 때와는 달리 정작 마주서자니 마음속에서

동요의 소용돌이가 고패쳤다. 지금 그의 육체는 리극로라는 인물과의 대결을 거부하고있었으며 알수 없는 중압감에 짓눌리고있었다.

(리극로는 어떤 사람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무는 제쳐놓더라도 남북련석회의 참가자이며 초대 내각상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 도랑을 막아놓고 상어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어부이야기가 있지. 아니, 베이징에서는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걸. …)

숨을 모았다 후련히 내분 권승훈은 점잖게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리부위원장동지, 갑자기 뛰여들어서 미안합니다.》

《아, 서기동무한테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리극로는 편안히 말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권승훈은 쿵쿵거리는 마음과는 달리 틀지게 사무실안으로 들어섰다. 기름이 찰찰 도는 대머리가 창문으로 비쳐든 해살에 번뜩이였다.

《거기 앉으십시오. 부상동무, 어떻게 걸음을 했습니까?》

《하하하… 리선생의 말투는 삼십년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합니다.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철없는 아이같은 권승훈의 구김살없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상대의 살바를 단단히 틀어쥔 씨름군과도 같은 배심있는 빠젓한 모습이였다.

그가 보기에 이 방의 주인은 비록 나이가 들어 육체는 체소하고 패기는 엿보이지 않았지만 영채가 비낀 두눈만은 홍안의 그 시절처럼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리선생,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오.》

리극로는 물을 담은 고뿌를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맏아들을 데리고 물질문화보존위원회에 가셨댔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리극로의 얼굴은 낯빛 하나 달라지지 않은 무심한 모습이였다.

《차정국위원장이 저에게 와서 한바탕 하소연을 하구 갔습니다. 리선생이 뭐 한바탕 휘저어놓고 갔다고 하던데… 허, 그래서 내 그 사람 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렴, 리선생이…》

권승훈은 말꼬리를 삼키며 물을 두어모금 마시고 안락의자곁의 탁자에 놓았다.

리극로는 여전히 안정된 자세로 입귀에 잔웃음을 담고 말했다.

《권선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놓는다는 말이 있지요. 난 안개속같은 인간들을 경원시합니다. 직방 이야기하십시오.》

안개속같은 인간이라는 말에 권승훈의 얼굴이 절벽에 새긴 돌조각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곧 억지미소를 띠우며 상냥스레 입을 열었다.

《내 말이 그리 들렸다면 량해해주십시오. 혹시 선생은 아직까지도 베이징에서 당한 일을 두고 저를 고깝게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여기는 이국이 아니고 선생과 나도 이전의 고학생이나 선배들의 뒤꽁무니나 쫓아다니는 애숭이는 더구나 아니지요.》

《…》

리극로의 두눈에서 타매의 불덩어리가 이글거렸다. 그 눈길이 얼마나 격렬한지 권승훈은 끝내 눈길을 떨구었다.

(나는 어째서 칼자루를 쥐고있는 지금도 훈장앞에 선 학동이 되고마는가?… 자승자박의 꼴이 되면 안된다.)

권승훈은 자신을 수습하며 다시금 용기를 내였다.

《사실말이지 리선생, 문제가 좀 심각해질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 위치에서 아래사람들의 신소를 소홀히 대할수는 없구… 더우기는 입심이 센 차위원장이 관료주의자니, 세도니 하면서 여기저기 들쑤셔놓고있는 형편이니 저로서도…》

리극로는 권승훈의 말을 중도에서 끊어버렸다.

《권선생, 선생의 사업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리해하고있습니다. 옳습니다. 갔던것도 사실이고 고함을 치고 걸상을 팬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부위원장동지?》

애써 유감스럽고 놀랍다는듯한 말투였지만 사실을 자인하는 리극로의 말을 듣는 순간 권승훈의 두손은 저절로 깍지가 맞물려졌고 속에서는 그야말로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희열이 파들거렸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실무적이며 진지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부름말을 선생으로부터 동지로 바꾸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리극로도 권승훈의 달라진 그런 태도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다.

《권부상동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구태여 말한다면 나는 차위원장이 이번 일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면… 걸상이 아니라 그 청사라도 통채로 헐어버리겠습니다.》

《아니, 부위원장동지…》

권승훈은 소스라치도록 놀란듯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리극로도 아쉬운 기색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상동무, 현지를 밟아볼것을 권고합니다.》

자기 생각에 옴해있던 권승훈은 미처 생각해볼 사이없이 대꾸하였다.

《예, 후에 제 꼭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조선어연구사업때문에도 바쁠 부위원장동지의 사업을 도와드

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리극로는 말이 없었다.

권승훈은 팽팽한 분위기를 피해 가벼운 목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피여오르고있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케자르의 말이지. 흥, 내가 아니라 리극로, 바로 네 손으로 말이다.)

3

전쟁을 이겨낸 평양은 새 혁신, 새 비약의 불길속에서 낮과 밤을 잊고 매진하고있었다.

이 땅의 만단사연을 다 안고 흐르는 대동강의 물결우에 흩날리는 복구건설의 눈부신 불꽃들이 수면우로 솟구칠듯 꼬리치고 들끓는 청춘들의 노래소리, 경제선동의 나팔소리가 평양은 백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미제의 헛나발을 가을락엽처럼 가뭇없이 날려버리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자동차와 불도젤들의 힘찬 동음에 화답을 하듯 패기있는 삽질소리, 얼싸, 얼싸하는 웨침

소리가 밤하늘가에 명쾌하게 메아리쳤다.

《이거야 어디 속이 끓어서…》

잠들지 못하고 들끓는 대동강기슭에 한 사나이가 거칠게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서성대고있었다.

주변에는 담배꽁초들과 성냥가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언제부터 오락가락했는지 바닥에는 그의 발자욱이 되는대로 무수히 찍혀있었다.

그는 내각참사로서 문화선전성(당시)을 비롯한 여러 중앙기관들과 그 아래단위들을 담당하고있는 정무산이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두터운 도수안경이 번뜩일 때면 지식인다운 풍모가 엿보였지만 늘 앞으로 구부정한 어깨는 돌격전에 나선 화선용사를 방불하게 하였다.

지금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무산! 오래 기다렸는가보군.》

《아, 이제 오나.》

《오늘은 별스럽구만, 내 사무실로 오면 될걸. 하긴 여기도 좋구만.》

정무산은 대꾸없이 친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로 찾았나?》

《무슨 일?… 내앞에 있는분이 도대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극로동지가 옳은가?》

《차 이런… 우리 나이 몇이라고 만나자바람에 그런 실없는 롱질이야.》

리극로는 셈평좋게 껄껄 웃으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새로 놓은듯한 돌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롱질? 이 정무산이가 드바쁜 이때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자구 자넬 불러낼 사람으로 보이나? 말해보게, 자네 오늘 일을 쳤지?》

《일이라니?!》

《난 자네때문에 하루종일 근심걱정뿐인데 본인은 갓을 쓰고 음풍영월일세구려. 자네 오늘 류학을 마치고 돌아온 억세를 앞세우고 모란봉에 갔었지?》

《…》

리극로는 권부상이 찾아와 하던 이야기가 이 대동강반에서까지 펼쳐지자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다.

《허허… 그 일때문에 날 만나자고 했나?》

《웃음이 나오나?》

손에 들었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내려던져 발로 비벼끈 정무산은 리극로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한가하게 산보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걸상을 부시며 란동을 부렸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거기에 차정국위원장이 국가검열성과 사법성에 신소했노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일때문에 우정 걸음을 한 권부상을 만나서는 뭐 보존위원회청사를 아예 박살내겠다고 했다면서? 사람이 언제 그렇게 교만해지고 사나워졌나? 말해보게, 설령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무슨 죽고사는 문제가 있다구 그런 만용인가? 사람들이 자네보구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남의 말만 듣고 어림짐작은 말게.》

정무산은 자기의 말허리를 뭉텅 잘라버리고 랭정하게 대하는 친구의 언행에 분기를 누를수가 없었다.

《뭐라구? 으ㅡ음… 그래, 이젠 친구도 발아래로 보인다?! 년년이 큰 간부만 하더니 아래사람들이 하찮아보이나? 모두가 존대해주니까 민충이 쑥대에 올

라간것처럼…》

《자네…》

《내 말을 끝까지 듣게. 지금이 왜정때인가 하나? 속에 내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던 옛날과 같나 말이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그런 란동을 부렸다면 잘했다는 사람이 있을텐가. 차위원장이 나한테도 찾아왔었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황소같은 사람이 눈물이 다 글썽해서 말을 하겠나. 난 너무 부끄러워 말 한마디 변변히 못했네.》

정무산은 리극로의 기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총사격을 하듯 말머리를 여기저기 돌려대며 련발하였다. 애초에 상대의 말은 들을념도 하지 않았다.

리극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소용돌이를 무산은 알수가 없었다.

《무산, 그래… 란동을 부린건 확실히 잘못이야.》

정무산은 친구에게서 자책의 기미가 엿보이자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지 담배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정말 내 생각대로 했다면 걸상이 아니라 그 위원장의 골통을 주어박았을걸세.》

정무산은 아연하여 입을 벌린채 아무 말도 못했다. 손에 들었던 담배가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자네 이제 보니 정말 교만해졌구만. 더이상 말을 않겠으니 자네 심성대로 해보게. 예로부터 직위가 사람을 빛내는게 아니라 사람이 직위를 빛내인다고 했어. 자넨 애초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자리를 내놓구 돌아앉아 조선어연구나 하는게 나을걸 그랬네.》

리극로는 분연히 일어섰다.

《뭐라구?! 음… 자네가 그렇게까지 날 믿지 않을줄은 몰랐구만!》

《어떻게 믿으라는건가? 이 자리에서까지 생사람의 골통을 주어박겠다는 사람을 도대체 무얼 가지구 믿어!》

리극로는 흥분으로 높뛰는 자기의 숨결을 가다듬었다.

《똑똑히 알아두게. 맑은 하늘은 우뢰를 두려워하지 않아! 난 잘못한게 없어!》

리극로는 정무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음을 돌렸다.

정무산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자기의 가슴을 들이치듯 기슭을 때리고 물러나는 물결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속에 어느새 40여년전 락동강의 물결이 출렁거렸다.

…《빨리 나오라!》

《야, 죽자구그래!》

물에 빠진 리극로를 안타깝게 부르는 학생들의 복작대는 소리가 조용하던 락동강기슭을 한순간에 마산읍거리 싸구려판처럼 만들어버렸다.

《선생님이 잘못을 사죄하기 전엔… 어푸, 죽어두 안나가!》

리극로는 강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렸다.

마산의 창신학교(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오스트랄리아출신인 교원도 어찌할바를 몰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잘못했다! 어서 나오너라! 다시는 조선사람을 모욕하지 않겠다!》

그제서야 리극로는 강기슭을 향해 팔다리를 저어갔다.

《어쩌자구그래! 락동강이 뭐 물웅뎅이인줄 아니?》

물에서 나온 리극로는 무산의 고함소리를 듣는척도 안했다.

푹 젖은 옷을 벗어 쥐여짜며 《선생님, 조선사람은 용기와 담력이 없어서 저 쪽발이들한테 먹히운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청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겁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음… 극로학생, 그렇다구 그리 과격하게 행동할 거야 있나. 하물며 우리야 사제간인데…》

《전 비록 우리와 민족은 달라도 선생님을 정의를 찬상하고 불의를 공박하시는분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모두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셨습니다. 선생님은 다름아닌… 우리 백의민족의 정신을 모독했단 말입니다.》

《?》

교원은 놀랐다. 농촌에서 온 어리숙해보이던 베잠뱅이학생이 이처럼 자기 민족의 존엄을 두고 분격해하고있는 그자체가 충격이였다.

리극로의 목소리는 이미 사제간이나 우아래사람이라는 관념을 벗어나 타민족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자

기 겨레에 대한 이질적인 관념에 항거하는 질타였다.

한동안 말이 없던 교원은 크게 뉘우치는바가 있어 마치도 어른을 대하듯 말투를 바로잡았다.

《극로학생, 내가 잘못했다. 내 진심으로 사과하니 경솔했던 이 선생을 용서해라.》

담담한 표정으로 용서를 빌던 교원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를 원망스레 바라보는 극로의 두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였다. 빼앗긴 나라, 민족의 수난을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는 사람만이 쏟아낼수 있는 정이였고 불길이였다.

한갖 애젊은이의 충동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우뚝 세운 허물수 없는 신조만이 뿜어낼수 있는 티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맑은 샘이였다.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여난 교원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교회에 몸을 담고 조선사람들을 《하느님의 어진 양들로 길들일》 제딴의 《포부》를 안고 긍지감에 넘쳐 예까지 온 사람이였다.

그런데 오늘 그 긍지와 자부심이 조선의 평범한 젊은이한테서 여지없이 부서져나갔다.

그날 교원은 락동강기슭의 언덕에서 야외강의를 하다가 문득 일장기를 보란듯이 띄우고 하늘을 새까만 연기로 물들이며 지나가는 왜놈의 기계배를 보고 조선사람들은 근대화를 다그치지 못하고 용기와 담력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분격해하자 교원은 《좋소. 학생들에게 진짜 용기가 있으면 이제 당장 강물로 뛰여들어보시오. 그럼 이 선생의 말을 철회하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자바람으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극로의 추상같은 웨침이 강기슭을 울렸던것이다.

《선생님, 조선민족은 렬등민족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외적의 침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결코 노예로 살지 않을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혈을 뿌린 리준선생님처럼 한몸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말릴 사이없이 《조선독립 만세!》라고 부르짖으며 강물에 몸을 내던졌다.

그때부터 교원들과 학생들은 불의와의 투쟁에 주저

하지 않고 서슴없이 뛰여드는 그를 가리켜 《물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정무산이 아는 창신학교시절의 열일곱살의 리극로였다. …

(그 시절의 저 친구는 얼마나 견결하고 정의로웠던가.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도 변할수 있는가!)

정무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하였다.

뭇사람들은 리극로라고 하면 베를린종합대학을 고학으로 졸업한 철학박사이며 조선어학회의 중심인물, 어학자라는 인상을 가지고있지만 그것은 인간 리극로의 인생길에 비추어볼 때 한 측면으로만 치우친 인식이였다.

그는 학문에 나서기 썩 이전에 벌써 독립군의 훈련도감으로 일반대원들의 격술과 사격, 규률과 질서를 책임졌던 사람이였고 한때는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홍범도의병대와 그가 속한 의병대의 통합으로 합군훈련도감이라는 책임적인 중책을 맡은바 있는 인물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고밀림을 헤매며 백두의 수림속에서 곰과 메돼지와 같은 맹수들과도 생사의 결투를 벌리던 완력적

인 사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력은 사나이의 가슴에 꽉 차있는 의기와 열정, 뜻과 용기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상야릇한것은 그러한 그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반말을 해본적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라는것이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무산에게 있어서 오늘일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4

정오를 넘긴 태양은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렸다. 신비스러운 그 령롱한 빛발은 자신이 가꾸어온 각이한 생명체들을 지구라는 커다란 무대우에 자랑스럽게 펼쳐놓았다. 거목들에 가리워 키돋움하는 보잘것없는 꽃관목마저도 생신한 해빛의 포옹력에 잠기여있었다.

그러나 구름 한점 없는 중천의 찌는듯한 해살도 녀인의 마음속그늘만은 가시지 못했다.

《호…》

리극로의 안해 공순은 설것이를 하다말고 제김에 허거픈 한숨을 내쉬였다.

한시간전에 씻어놓은 그릇을 다시 씻어내고있었던 것이다.

주부의 얼굴에 비낀 검은 그림자, 이는 남편이 안해의 잔잔하던 마음속 호수가에 던진 미궁의 돌이였다. 잔물결을 일으키며 가슴속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공순의 마음을 혼잡과 불안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공순은 가슴이 답답해지자 빨래함지를 안고 마당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오늘 아침 남편은 대문앞에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김일성**장군님앞에 죄를 지은것 같다는 엄청난 소리를 해버리고 출근하였다.

한동안 멍해있던 공순이 자기 정신을 되찾고 따라나가보니 벌써 남편의 차는 가벼운 먼지를 일으키며 아지랑이속에 자취를 감추고있었다.

공순은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았다. 방안에 어떻

게 들어서고 무엇때문에 이불장문을 열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해방직후 함흥감옥에서 들것에 실려나오는 주검이나 다름없던 남편을 대할 때에조차도 이런 심정은 체험하지 못했었다. 아마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살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때문이였을것이다.

그러나 오늘 신의를 저버린 남편의 모습은…

자기 가정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김일성**장군님앞에 죄를 진 남편은 꿈속에조차 그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였다.

오리무중같이 종잡을수 없는 사색과 가설은 공순의 머리를 송두리채 거머쥐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남편을 따라 갖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그였지만 시간이 오늘처럼 더디게 흐르는 느낌은 일찌기 느껴보지 못했다.

공순은 식음을 전폐하고 지루한 하루해를 지나보냈다.

《억세 어머니, 집에 있소?》

제 생각에 옴하여 방안에 망연히 앉아있던 공순

은 잡념에서 깨여나 대뜸 두눈을 치떴다. 분명 그 목소리의 임자는 남편의 살친구인 정무산이 틀림없었던것이다.

(혹시 무산아주버님이라면 알고있지 않을가.)

이런 속생각으로 서둘러 밖에 나서니 정무산이 어린아이처럼 졸짱구멍에 입을 대고 물을 들이키고있었다.

《그러다 탈이라도 만나면 어쩔려구. 내 이제 바가지를…》

《됐수다. 너무 속이 타서… 억세 어머니, 억세 아버진 아직 안들어왔소?》

《아직…》

《이제 들어오겠지요.》

자빠진 마당비를 고쳐세우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무산이 물었다.

《집이 왜 이리 조용하우?》

《큰애들은 모두 복구건설장에서 늦어서야 들어오구 건세와 봉세는 저 건너집에 놀러 갔어요.》

정무산은 바지가랭이에 묻은 물을 손으로 털어냈다.

《그래 조용했구만요.》

《저…》

공순은 아무리 자기 집안과 가까운 정무산이라 하지만 아침에 남편이 한 엄청난 말을 꺼낼 자신이 없었다.

《아주버님, 우리 억세 아버지에게 일이 생겼지요?》

《억세 어머니두 알고있소?》

정무산이 남편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공순은 점점 더해지는 의구로 하여 목젖이 마를 지경이 되였다.

《아주버님, 어서 말해주세요.》

《실은… 나두 뭐가 뭔지 통 모르겠수다. 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가검열성에서 동갑이에 대한 신소건을 접수하고 곧 내각에서 심의한다고들 했수다. 조사조가 내려가서 료해를 한다던지…》

(조사조가…)

공순은 선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밖에 나선 사람처럼 온몸이 오슬오슬 떨리였다.

꼭두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기가 들을세라

《아침에 곧장 내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하던 남편의 얼굴이 제일선참으로 눈앞에 얼른거렸다.

《억세 어머니, 몸이 불편한것 같은데 방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방안에 들어선 무산은 더이상 숨길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친김이라 우선 자기가 아는 얘기를 모두 말해버렸다.

《아니, 그게 정말이나요?》

공순은 금시에 숨길이 막혀버리며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해방전에 조선어학회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제의 야수적검거가 감행되는 속에서도 모든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동지들을 감옥밖으로 내보낸 남편의 인간됨에 더없이 가슴이 뭉클하였었다.

말로만 듣던 사나이들의 의리의 세계를 두고 그때처럼 깊이 감동되여본적도, 또 아득히 올려다본적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래사람들앞에서…)

무엇인가 그의 심장을 콕콕 찔렀다.

남편에 대한 실망과 서러움이 서슬푸른 날창으로 벼려져 그의 심장을 향해 사정없이 육박하고있는듯 했다.

(아니… 억세 아버진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될수가 없어.)

공순은 남편을 믿고싶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만은 믿고싶었다. 함께 살아온 이십여년의 세월은 그로 하여금 지금의 의심보다 믿음을 력동적으로 충동하고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였다. 리유가 어찌되였든 그에게 있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고 남편의 만회할수 없는 잘못임이 틀림없었다.

공순은 악몽같은 아침일이 되살아나자 남편에 대한 믿음에 균렬이 생기는 자신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추억의 쪼각들을 긁어모아 버팀목으로 세워보았으나 일단 기울기 시작한 마음속의 기둥을 버티여낸다는것은 조련치 않았다.

옛날사람들이 말하던 팔난(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불란리, 물란리, 칼, 병란)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이 개운할것 같았다.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 변할수가 있어요? 당신을 내세워준 장군님의 그 믿음을 정말 저버릴수 있나요.)

《억세 어머니!》

무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억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니 서기가 하는 말이 아침일찍 내각으로 곧장 들어갔다는게 아니겠소. 어찌되겠는지… 그래서 억세 아버지를 만나 물어보려고 이렇게 왔수다.》

공순은 점점 더 막막한 소리를 하는 정무산의 말에 안절부절을 못하고있었다.

이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억세 아버지인 것같수다.》

성급히 몸을 일으키던 공순은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일단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모든것을 따질 차비였다.

《어머니!》 하는 부름과 거의 동시에 문이 열렸다.

《맏이야, 한달후에야 온다고 하지 않았니.》

공순은 급작스런 맏아들의 출현에 그만 의아하여 모성애의 감정도 다 잊은채 반가움보다 의문이 실린 말을 해버렸다.

《강재를 받으러 강선에 가야 합니다. 차시간이 래일 새벽이여서 이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응, 많이 상했니?》

붕대를 감은 손을 잡고 정무산이 하는 걱정의 말이였다.

《아닙니다. 몇해째 책상에 앉아 씨름질만 하다나니… 삽질 몇번에 손이 좀…》

《근본을 잊으면 아니된다. 이젠 색시두 얻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자두 안겨드려야지. 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다보니 아직 그 재미를 모르지.》

《큰아버지두…》

억세는 처녀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뒤머리를 매만

졌다.

《다 큰 녀석이 내우하긴… 아, 그렇지! 너 정말 마침 왔다. 억세야, 외국류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버지와 함께 물질문화보존위원회에… 갔댔니?》

《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까?》

정무산의 입이 얼어붙고말았다. 한것은 억세의 말투가 너무도 례사롭고 평범한 까닭이였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공순은 초조한 심중을 애써 누르며 아들에게 물었다.

《예, 아버진 그날 정말 흥분했었습니다. 하기야 성미급한 큰아버지라면 더했을겁니다.》

공순과 정무산의 의아쩍은 눈길이 마주쳤다. 억세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공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아버진 그날… 나를 모란봉에 있는 항일투사들의 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묘소주변엔 풀이 무성하구 사람의 손길이 닿은지 퍽 오래된 것같았습니다.》

《?!…》

《아버진 나와 함께 한시간나마 묘소들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투사동지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 공화국이 있다고, 혁명선렬들앞에 일생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학을 갔다왔으면 좀 안다고 거드름을 피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복구건설장으로 나가서 로동자들에게서 성실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

《보존위원회에는 모란봉을 내리는 길에 들렸습니다. 거기 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항일투사동지들의 묘소관리를 이렇게 한심하게 해서야 우리가 후대들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다니겠는가. 묘비도 다시 고쳐세우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예.》

(그럼 차위원장이…)

억세의 말을 듣는 정무산의 얼굴이 점점 이그러지고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일손

이 바쁜지 잘 모를거라고 하면서 복구건설이 한창이여서 손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도 보다싶이 반토굴에서 방금 벗어났는데 지금 한가하게 묘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사건설이나 마무리하고나서 손을 대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정무산은 이제서야 그때의 리극로의 억울한 심뇌를 어느 정도 리해할것 같았다.

《나쁜 놈,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야 뭔가 표상이 잡힌다. 억세 어머니, 그 위원장이라는 놈이 내각에 신소할 때는 억세 아버지가 모란봉을 꾸리지 않았다구 행패를 했다고 했수다. 억세가 한 소리는 듣느니 처음이웨다.》

《아주버님, 그게 사실이예요?》

《내 성미를 몰라서 그러우? 난 듣지 못한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우다. 억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 성격에 참아낼리가 있소? 나라도 참지 못했을거우다. 그런걸 괜히 이 덜퉁한 놈이 억세 아버지에게 아픈 말을 했소구려. 나쁜 놈!…》

정무산은 차정국에게 놀아난것이 괘씸하여 씩씩거

렸다. 걸상이 아니라 차정국의 골통을 주어박겠다고 하던 리극로의 모습이 떠올랐다.

《억세야, 이자 한 말이 사실이겠지?》

《큰아버지두, 내가 아무렴 없는 이야기를… 헌데 큰아버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 아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그게 답니다. 내 보기엔 더구나 새로 지었다는 그 위원회청사가 투사동지들의 묘소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화려한데다 꽃나무들까지 떠다심어 공원속에 있는것같은 풍경이 아버지를 더 격분하게 했다고 봅니다. 난 아버지가 그렇게 노여워하시는걸 처음 보았습니다.》

정무산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책으로 머리가 숙어졌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모형제나 자기를 크게 도와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잊지 않고 찾아도 보고 추억을 하면서도 나라의 해방과 겨레들의 행복을 위해 손에 무장을 잡고 혈전만리를 헤치며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항일의 선렬들을 비롯하여 희생된 애국자들은 감감 잊고있다, 물론 전쟁으로 모

든것이 파괴된 이때 공장이나 주택을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한몸을 내던진 애국자들에 대한 량심과 도덕의 리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사들의 묘가 비물에 씻기고 풀이 무성한것을 보면서도 아무 가책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이 누구의 덕택으로 두발을 펴고 편안히 살고있는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보금자리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조상도 나라도 민족도 모르는 시정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선렬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뜻과 넋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돼.>라고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공순의 가슴속에서 감동의 파도가 출렁이였다.

(아, 내가 그런 남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나요.)

그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남편은 평소에 무뚝뚝하고 일에 파묻히면 주위세계를 망각하는 사람이였다. 그 과묵함때문에 친지들한테서까지 종종 오해를 샀고 안해로서도 섭섭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좀처럼 설명이나 변명 같은것은 해본적이 없는 남편이였다.

공순은 남편이 차라리 딱친구인 정무산이처럼 좀 급하기는 해도 써글써글하고 마음을 툭 털어놓고 사는 콸콸한 성미였으면 하는 생각을 몇십번도 더 했었다.

조선어학회시절 남편의 사무실 출입문에는 조선글로 된 이런 문패가 걸려있었다.

《일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고 만날 사람은 이야기를 간단히 하시오!》

남편은 이처럼 군말을 용납하지 않고 남의 쓸데없는 구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이였다. 하니 안해라 할지라도 말을 붙여볼수 있는 틈새나 여유가 쉽게 차례지지 않았다.

빵ㅡ

공순과 무산은 약속이나 한듯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5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뛰여나간 억세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다.

《아니, 어떻게 벌써 돌아왔니?》

《강선에 강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들렸어요. 래일 새벽차에 가야 한대요.》

공순은 앞서는 마음이 있어 부자간의 대화가 길어지는것을 막으려고 아들대신 말을 해버렸다.

《그래, 당신이 좋겠구만. 억세를 오자마자 건설장에 내보냈다구 섭섭해하더니.》

《원 당신두… 어서 들어가시자요.》

공순은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가방을 받아안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 자네두 왔구만. 언제 왔나?》

《둬시간 됐네.》

무산은 마치 초면부지의 사람을 대하듯 뚝뚝하게, 아니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아이들은 왜 안보이오?》

《큰애들은 밥까지 싸들고 제 동무들과 복구건설장에 나갔어요. 건세와 봉세는 옆집 철이한테 연을 만든다고 가구요.》

《녀석들이 이제는 다 컸구만. 겨우 네살을 넘긴 봉세가 이젠 제법 형님들을 따라 마실까지 다니니… 세월이 빠르긴 빨라. 허허…》

극로의 때아닌 롱질에 무산과 공순은 허구프게 웃었다.

웃옷의 단추를 끄르던 극로는 끈질긴 주위의 시선을 느끼자 미심쩍은 눈길로 자기의 몸차림을 살피였다.

《왜들 그러우,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억세 아버지!》

여직껏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해있던 공순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심의는 어떻게 됐나요?》

리극로는 안해의 입에서 심의라는 말이 튀여나오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나두 아주버님한테서 다 들었어요. 오늘 내각에서 당신 일을 두고 심의를 한다는…》

공순은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아침에 한 말때문에 당신이 하루종일 걱정을 했구려.》

리극로가 괜한 소릴 했구만 하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는데 무산은 어쩐지 면구스러워 얼굴을 돌린 채 딴전을 부리고있었다.

억세는 억세대로 영문을 알수 없어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여보, 이틀후에 출장을 떠나야 하니 준비를 좀 해주오. 아마 시일이 좀 걸릴것 같소.》

《예?! 갑자기 어디엘…》

의혹의 공기가 한순간에 방안을 꽉 채웠다.

안락의자에 앉은 극로는 창가너머로 복구건설로 잠들지 못하는 불밝은 밤거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안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여보, 내가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가게 됐소.》

《예에? 아니 여보, 그럼 아침에 저한테 한 말은 뭐예요?》

정무산이 참지 못하고 이야기판에 끼여들었다.

《이런 답답하다구야. 시원히 말 좀 하라구. 우리 두 방금전에야 억세에게서 사연을 전해들었네. 내 보존위원회 위원장인지 뭐인지 하는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네. 허 참, 헌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듣기로는 내각에서 오늘 자네 문제를 심의한다고 했어. 그 성미에 제입으로 사실을 일일이 말했을리 만무한거구. 차라리 장군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올리지.》

급한 성미그대로 무산이 극로를 숨가쁘게 다그어대였다.

《자네두, 정사에 바쁘신 장군님께 그런 일로 근심을 끼쳐드리겠나.》

《그럼 헬싱키에 간다는건…》

《그렇게 됐네.》

리극로는 걱정스레 앉아있는 안해를 향해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거야 어디… 그럼 자네 일은…》

리극로는 큰숨을 내쉬였다.

《나두 잘 모르겠네. 오늘회의에선 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네.》

《?》

이때 짤랑하는 대문종소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당중앙위원회 부장동무가 어떻게… 여보, 내 옷!》

몸을 일으켜 창문너머로 마당을 건네보던 극로가 성급히 옷을 받아입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서둘렀다. 눈치빠른 억세가 앞서며 아버지의 발밑에 신발을 놓아주었다. 무산과 공순도 바삐 신발을 찾아신고 마당에 내려섰다.

《안녕하십니까? 제 집사람입니다.》

공순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내각참사동지두 여기 계셨구만요. 아, 류학을 갔던 맏아들입니까? 끌끌하구만요. 딸가진 집들에서 탐을 내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은 인사를 하는 억세의 잔등을 정답게 두드렸다.

《아직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장동무가 저녁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밖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나서 말하였다.

《부위원장동지, **김일성**장군님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리극로와 공순은 물론 아들과 정무산도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부위원장동지, 오늘 아침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물질문화보존위원회에서 국가검열성에 제기한 부위원장동지에 대한 신소건을 료해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장군님께서요?》

《그렇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내가 아는 리극로선생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장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리극로선생의 이름을 몇번이나 되뇌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는것이였다.

나는 이런 문서가 아니라 인간 리극로선생을 믿는다. 지난 시기 우리와 손을 잡고 싸운 사람이 아니

라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덮어놓고 나타난 현행을 과거와 련결시키는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화국은 그가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모두가 손잡고 일떠세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는 굴욕적인 리승만《정권》에 등을 돌리고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사선을 헤치고 북으로 들어온 애국인사이다. …

그러시고는 오늘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문제를 시급히 다시 알아보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다는것이였다.

《장군님!》

리극로는 머리를 숙인채 말을 더 잇지 못하였다.

공순은 격정이 너무도 커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고개를 들지 못한채 소리내여 흐느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은 사람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기를 기다리는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한참후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오늘 점심식사시간도 미루시며 우리가 다시 료해한 정형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갈리신 음성으로 사실

모란봉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께서는 짐작을 하셨다고, 아마… 아들에게 백두산에서 싸운 투사들의 넋을 심어주자고 했을거라고 하시며 전쟁시기에 연포리 주막집보존사업을 놓고 우리 후대들이 선렬들의 투쟁력사를 모르면 후레자식이 될수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바로 리극로선생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시간이 가도 이 이야기만은 해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1927년에 제1차 세계약소민족대회차로 벨지끄로 가던중 네데를란드의 헤그에 들린 기회에 일본령사관놈들에 의해 파괴된 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리준선생의 묘를 끝내 찾아내여 수복하게 한 사람이 바로 리극로선생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모두 두눈을 크게 뜨고 감격해하는 리극로를 바라보았다.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던것이다.

《그러시면서 국가검열성료해문건에 선생을 관료주의자라고 했는데 그의 행동은 관료주의의 온상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량심을 가리켜준 참다운 모습이라고, 관료주의로 말한다면 떠나간 애국선렬들에

대한 의리도 도리도 모르는 신소자들과 인간의 운명 문제를 두고 무책임하게 결론한 료해자들에게 적중한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국가검열성에서 제기한 것처럼 그에게 관료주의감투를 씌여야 하겠는가, 아니다, 감투를 씌울것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이 희생된 항일렬사들을 비롯하여 애국애족의 길에 한목숨을 다 바친 선렬들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따라배워야 한다, 리극로선생은 도리와 의리를 아는 우리 당이 아끼고 내가 믿는 참다운 민족주의자이고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

리극로는 입을 손으로 막고 오열을 삼키였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나큰 믿음에 형언할수 없는 무아경에 빠져들었다.

《여보, 용서해요. 삼십년가까이 당신과 함께 살아온 저두 당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댔어요. 그런데…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공순은 자책과 감격의 눈물로 옷깃을 화락하게 적시였다.

《아주머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리극로선생에게

양복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리극로선생을 보니 남북련석회의때 입었던 양복차림 그대로였다고, 나라와 민족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선생이 홍안의 그 시절부터 환갑이 넘은 오늘까지도 조선어연구사업에 애쓰는 모습을 볼 때면 머리가 숙어진다고, 이번에 우리가 국제회의에 입고 갈 새 양복을 마련해주자고 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그가 옷을 입은 모습까지 보고 와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리극로는 끝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항일의 전구에… 장군님의 풍찬로숙에 피 한방울 고여본적이 없는 이 몸입니다.》

《여보!—》

《아버지!》

안해와 아들이 리극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두눈이 아니라 가슴에서 북받쳐 쏟아내는 인간의 눈물을 멈출수 없었다.

《부위원장동지, 자, 진정하고 어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복을 입어보십시오.》

《예, 예…》

자연의 해발이 서서히 사라지는 마당가에 그에 비할바없는 어버이의 따사로운 백광이 찬란하였다.

그 사랑과 믿음의 열기가 넘치는 마당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양복을 입은 리극로가 나섰다.

《정말 멋있습니다. 부위원장동지가 십년은 더 젊어보이더라고 **김일성**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장동지, 꼭 그렇게 보고드려주십시오.》

리극로는 숭엄한 마음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실 내각청사가 자리잡은 곳을 우러르고있었다.

열일곱살나이에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집을 탈가한 후 약장사로 학문을 깨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살아남을수 있다는 이역의 처마아래서 모질고 서리찬 바람에 밀리고 비틀리우며 고학의 쓴물을 묵묵히 감수하여야 했던 그였다.

나라가 없어 자기 민족의 언어를 연구한다는 리유로 열손가락의 손톱을 다 뽑히우고 사등뼈가 으스러

지는 철창속의 수난을 당해야만 했던 그였다.

그러나 오늘 그의 모습에선 어제날의 그 시련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찾을수 없었다.

《여보! 무산이! 내 언제인가 해방직후 서울에서 <정로>에 실린 장군님에 대한 기사를 읽은적이 있었소. 그 기사에선 북조선의 농민들은 분여받은 자기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걸굴 때마다 민족이 낳은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심장으로 느낀다고 썼소. 그때는 그 글의 의미를 미처 다 몰랐었지. 하지만 장군님의 품에 안긴 후에야 그 진정한 뜻을 깨달았구려. 그러나 오늘 이처럼 **김일성**장군님의 그 뜨거운 인간애를, 장군님의 하해같은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보니… 난 어머니를 보고있네. 젖먹이시절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간, 꿈속에서도 찾을길 없던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네. 륙십나이에 어머니의 크나큰 품에 안겼단 말일세.》

《극로!》

《자기를 태워 빛과 열을 주는 하늘의 태양이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오로지 겨레만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이 몸을 걸음걸음

지켜주고계시네. 그이께서는 나더러 애국자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화신은 우리 장군님뿐이시네.》

리극로는 무산의 손을 붙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륙십고령에 이른 그의 눈가에 가랑가랑 고였던 맑은 이슬이 밭고랑같은 두볼로 흘러내리고있었다.

(장군님, 그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입니다. 이 리극로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영원히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끓고있었다. 쇠물보다 뜨겁고 용암보다 더 이글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수 없는 거세찬 불도가니가 깨끗하고 순결한 인간들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고있었다.

【단편소설】

의 무

정 성 남

1

내가 김선생님과 헤여진지도 벌써 반년이 되여오는군요.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선생님의 댁에 들려 초면이면서도 구면인 우리들사이에 친지의 정을 나누며 받아안은 깊은 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나사이에 첫 인연을 맺게 된 시기라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90년대중엽이라고 해야 할겁니다.

밴쿠버(카나다의 한 도시)에서 대학교수로 있던 나는 어느 일요일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별안간 눈이 휘둥그래졌지요.

글쎄, 신문에 남조선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30여

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옥했다는 한 비전향장기수의 소식이 한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던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 무척 상했는지 마치 의족이나 한것처럼 부자연스러워보이는 늘어진 다리, 완전히 펴지 못하는 굽은 허리, 희다못해 듬성듬성 빠져 아직도 수인을 방불케 하는 머리숱…

그런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석장에서 묵중한 바위돌을 들고있는 모습앞에 나는 한동안 망연자실해있지 않을수 없었답니다.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이 울컥 치밀어올랐지요. 아울러 사진의 주인공이 수십년간의 수감생활이라는 무서운 고통과도 바꾸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심 같은것이 뒤따르더군요. 물론 그때까지는 그것을 깊이 리해해서 생겨난 감정은 아니였습니다.

난 주저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만하면 카나다에서도 명망있는 대학의 교수인 동시에 동포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몇몇 신문들의 객원기자로서 이 불행하고 반인륜적인 비극상을 도저히 외면할수 없었기때문

이죠.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당사자인 김선생님과 장기수후원회에도 나의 동정과 지지성원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보냈답니다. 그때부터 나의 문필활동에서는 그와 관련한 일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지요.

그것이 내가 김선생님과 알게 된 동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내가 선생님에게서 회답편지를 받은것은 선생님과 동지들이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으로 귀환한지 몇해가 지난 뒤였지요. 그때로부터 수차에 걸친 서신교환과정에 호상 사진들도 주고받아 우리는 초면이면서도 마치 잘 아는 구면친지처럼 되여버린것이 아니던가요. …

하지만 막상 그날 선생님의 댁에 들어서서 선생님과 마주섰을 때 난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처음 신문의 사진에서 본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아예 딴 사람을 보는듯해서였지요.

순간 나의 머리속은 두 세계로 갈라져 서로 충돌하기도 했고 마구 엇바뀌기도 했답니다.

한켠은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는 비좁은 공

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독과 적막감, 쥐굴같은 0.75평의 독감방안에 홀로 우두커니 서있는 사나이, 골병에 몸이 한껏 쫄아들었는지 체소한 그의 이마는 온통 주름살투성입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것을 증명하려는듯 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만은 퍼런 불을 뿜는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켠은 정 반대였지요. 온화해보이는 얼굴표정에 지성미가 풍기는 현숙한 안해, 의젓한 아들며느리에 귀여운 손자손녀들, 즐거운 웃음이 넘쳐나는 대가정, 아늑하면서도 화려한 주택, 그 모든것을 배경으로 건강미를 과시하며 반가운 미소를 짓고 서있는 풍채좋은 사나이…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도 극적으로 바뀔수 있단 말인가. 요술가들이 펼치는 신비로운 세계도 이렇게 희한하고 충격적일수 있을가. …

더우기 나보다 20여년이나 우인 70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력이 넘쳐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나를 몹시 기쁘게 했답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속에서 감격적인 인사를 나눈 후 집주인의 손에 이끌려 어느 한 방에 들어선 나는 방

안을 빙 둘러보았지요.

그 방은 보매 꾸밈새로 보아 필시 김선생님이 리용하는 방인듯했습니다. 품위가 있어보이는 가구들이 질서있게 배렬되여있는것이 주인의 담백하고도 정갈한 인품을 돋구어주는듯싶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채를 띠고 갖가지 화초들이 우줄우줄 키를 솟구는 모습은 그 어떤 활력과 기백을 상징하는것같기도 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는 나의 시야에 선뜻 비껴든것은 벽에 걸려있는 여러개의 액자들이였답니다.

호기심이 동해 눈여겨 바라보던 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탄성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지요.

김선생님이 조국의 품에 안긴 후 나라에서 안겨준 영웅칭호와 조국통일상증서, 박사증을 비롯한 국가표창장들과 학위증서들이였기때문이죠.

난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고 이렇게 말을 이었지요.

《김선생님은 이젠 여한이 없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쓰셨지요. 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떠받들어주고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후세에

길이 남을 최상의 명예들을 지녔으니 자손들은 물론이고 만사람들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걸 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요. 그 비결을 두고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겠지만 전 선생님의 솔직한 일가견을 듣고싶군요.》

나의 이 말에 선생님의 혈색이 불깃불깃한 얼굴에 피뜩 어줍어하는 빛이 스쳐지나가더군요.

다음순간 선생님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나라에서 받아안은 값높은 표창과 크나큰 은덕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이란 너무도 적은편이지요. 수십년간의 옥중고초를 이겨내며 지조를 지켜낸것뿐이니까요. 우린 다만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을뿐이요.》

《후회요?…》

나는 리해가 잘되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렸죠. 그러자 선생님은 나의 의혹을 풀어주려는듯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때가 1970년대중엽이였을거요.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정권》이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에 한창

열을 올리던 때였지.

무지막지한 고문이 요구하는것은 단 한가지, 전향뿐이였소. 그의 거부에 대한 대답도 간단명료했소. 시체가 되느냐, 전향하느냐 하는 두 길뿐이였던 거요. 이여의 대답이란 존재하지도, 허용되지도 않았지.

어느날 깊은 밤 당직간수가 조는 틈에 통방을 하던 나는 가슴이 섬찍해왔소.

아침에 전향공작반으로 끌려나간 최동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이였소. 불안한 생각에 가슴이 떨려왔지. 애써 잠을 청해보았지만 오히려 그 잠은 온갖 불길한 꿈만 몰아오는듯했소.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담당간수가 때에 맞지 않게 히물거리며 나타났소.

《당신도 2694번 신세가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후회없이 처신하는게 좋을텐데…》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했소. 2694번이란 최동지의 수인번호였던거요.

《아직도 모르시나? 어제 오후에 2694번이 전향을 하고 자기 동지들을 볼 체면이 없다고 벽에 머리를

쫓고 자살한것 말이야.》

《?》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눈앞이 새하얗게만 보였소.

그날 저녁 동지들사이에 맹렬한 통방이 오고갔소. 교도소측의 말을 과연 믿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소. 대부분의 동지들은 중상모략이라고 단정했지.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듯했소. 류달리 병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최동지가 최근 며칠동안에 심각한 고민에 시달리는듯한감을 느꼈다면서 혹시나하는 눈치더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도 확인할수 없는것이였소.

이렇게 20여일이 지나갔소. 그간 교도소측에서 최동지의 《비참한 운명》을 꺼들며 전향공작의 도수를 더욱 높인것은 두말할것도 없었소.

최동지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적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니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것 같았소.

내가 최동지를 굳게 믿고싶은 리유는 특별한것이 아니였소. 그것은 언제인가 마당산보를 나갔다가 그

에게서 들은 짤막한 몇마디의 말속에 있었소.

《사람마다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는 법이요. 다른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하오. 사람이란 보이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모습이 더 아름다와야 한다고 말이요.》

나랑 우리 동지들은 더이상 피동에 빠져있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소. 우리는 주동적으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세에로 넘어갔소.

요행 며칠만에 최동지의 감방정리를 맡았던 잡범에게서 자그마한 천쪼박 하나가 우리들의 손으로 넘어왔소. 거기에는 최동지의 낯익은 필체가 피로 씌여져있었소.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라!》

이 짧은 문구가 순간에 우리 동지들을 단합시켰고 집단단식에로 궐기시켰소. 교도소측은 종시 최동지가 저들의 살인적인 전향요구에 견결히 맞서 자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소.

《후회를 남기지 말라!》

김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난 조용히 이

말을 되뇌여보았지요.

의미심장한 그 뜻을 새겨보는 나의 얼굴을 선생님은 한참이나 지켜보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이었지요.

《그렇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와 우리 동지들이 수십년간을 옥중에서 견뎌낸것은 남들보다 신념과 의지가 특별히 강해서라고만 생각지 않는다오.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해 심신을 바치겠다던 맹세… 그 성스럽고 소중한 모든것을 저버리고 서슴없이 배반하는 인간, 오직 자기의 목숨과 운명만을 생각하는것보다 비렬하고 추악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소. 우린 그런 너절한 인생을 선택할수가 없었지. 최동지의 유서도 그런 뜻을 담은거라오.》

마음속으로 강한 전률을 느끼며 나는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적들이 그따위 온갖 비렬한 권모술수와 오그랑수도 서슴지 않은것도 우리가 그런 추물들이 되여 일생 후회속에 살기를 바랬기때문이 아니겠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었기에 불구가 되면서도,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맞섰던거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요. 언중유언이라 그 말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안겨와서였지요.

한참후에 난 다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젠 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명예를 다 지녔고 인생말년의 행복도 만족스러울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생의 소망이 없진 않겠지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싶군요.》

나에겐 진정 흥미가 동하는 질문이 아닐수 없었답니다. 선생님과 동지되는분들의 한생이 평범치 않은것처럼 여생의 소망도 결코 평범치는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겁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선생님은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지요.

《소망이 한가지 있다면… 더이상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거요.》

순간 다시 얼떠름해져 선생님의 얼굴을 주시하던 나는 은근히 놀라고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선생님의 눈에 가늘게 피발이 서고 어딘가 피로에 휩싸인 표정으로 보였기때문이지요. 지어 그 어떤 고뇌의 흔적까지 비껴있는듯싶었습니다.

나로선 좀처럼 리해할수가 없는 선생님의 대답이자

고민어린 표정이 아닐수 없었지요. 후회없는 한생을 살아온분에게 전혀 동닿지 않게 갑자기 후회라니…

이상야릇한것은 저의 질문들과 선생님의 대답사이에 미세한 격차가 존재하고있는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난 화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지요.

《참, 선생님은 조국에 귀환하신 후 통일과 관련한 저서들을 여러건 집필하셨더군요. 그 도서들이 제가 사는 카나다나 미국 등지의 교포사회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저 한것은 그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 말에 선생님의 얼굴에 얼핏 호기심이 떠오르는것이 알리더군요. 난 다시 활달한 기분으로 주저없이 용건을 터놓았지요.

《제가 지금 밴쿠버에서 대학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출판사도 하나 경영하고있는데 운이 좋아서인지 영업이 괜찮게 되고있답니다. 또 우리 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서들이 사회계에서 호평을 받고있어 이제는 일정한 권위도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전 선생님의 저서들을 우리 출판사에서 발행해볼

생각인데 선생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기실 이것은 나의 진정이기도 했지요. 나로서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수 있는 유일한 것일수도 있었으니까요.

《제 보건대 통일문제를 도서의 주제로 설정한것이라든가, 필자의 류다른 경력과 특이한 실생활체험에 토대하고있는 선생님의 원고들은 카나다나 미국에서 발행하면 교포사회에서는 물론 현지인들속에서 큰 파급력을 가질수 있을겁니다. 조국에서 이미 출판하신 도서들을 재판해도 좋구요. 차라리 아예 새로 집필한 원고들도 우리 출판사에서 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료는 재판료대로 받을수 있고 신간저서인 경우에는 저작권료까지 합하여 약차한 수익금을 얻게 되지요. 물론 선생님 같으신분들이 돈문제 같은데 관심을 두지 않으리라는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선생님의 명성이 더 유명해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지요. 그건 선생님이 응당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참 흥이 나서 설명을 이어가던 난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눈가에 피뜩 시퍼

런 섬광 같은것이 번뜩이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지요.

얼마동안이나 흘렀던지요, 장막처럼 무겁게 드리운 침묵이…

지루하다 할만큼 정적이 흐른 뒤에야 후ㅡ 하는 긴 한숨소리를 내며 선생님은 입을 열었지요.

《교수선생에게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데 흥미가 없소.》

말을 마친 선생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의 한켠에 놓여있는 넓은 량수책상으로 조용히 다가갔지요. 그우에는 분명 한창 집필중인듯한 원고들이 펼쳐져있더군요.

의혹에 가득찬 나의 시선을 모으며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있던 선생님은 잠시후에 이렇게 말했지요.

《방금 교수선생이 이야기한것은 아예 없었던 일로 치는게 어떻소?… 정말 미안하오.》

난 당황하기도 했고 창피스럽기도 했답니다. 선생님을 위한다는 일이 오히려 노엽히게 됐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호의를 거절하는 선생님의 심정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를

더욱 괴롭혔지요. 이 안타까움은 선생님과 헤여진 후 반년동안이나 나의 마음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미지의 수수께끼로 아직 남아있답니다. …

2

교수선생, 선생이 보낸 긴 편지에 비해 나의 편지가 짧다고 혹시 성의가 부족한것으로 생각지는 않겠는지.

솔직한 말로 그 편지를 보면서 선생의 진정을 더 잘 알수 있었고 나의 지나친 처신에 대해 돌이켜보기도 했소. 모처럼 조국을 방문하여 우리 집까지 찾아온 선생을 기쁘게는 해주지 못할망정 진심어린 호의까지 단마디로 거절해버렸으니 이런 인사불성이 또 어디에 있겠소.

물론 교수선생이 내 저술활동의 취지를 곡해하고있지 않은가 하는 나의 의혹이 선입감으로 이어져 교수선생의 진정을 오해하게 한것만은 의심할바 없을거요. 그러니 이 편지를 나의 사과의 의미로 받아준다면 난 더 바랄것이 없겠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소. 내가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지성을 다하는 교수선생이나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본의아니게 괴롭히고 또 울리기까지 할줄 어찌 알았겠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지… 그저께 있은 일이라오. 우리 집에 나의 담당녀의사가 정기검진을 왔댔소. 나이는 40대초반밖에 되지 않는 녀성이지.

나지막한 키, 오달진 체구, 더구나 입안에 밤알이나 문것처럼 오동포동한 두볼은 살짝 건드리면 무엇인가 튀여나올것만 같아 복스럽다 못해 지어 귀엽다는 생각까지 품을 정도라오.

나와 동지들속에서 《우리 맏며느리》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이 녀의사는 성격이 시원스럽고 행동거지도 도담해서 그와 마주앉으면 처음엔 조심스럽다가도 나중엔 마치 부녀간처럼 허물이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오.

가벼운 우스개소리에도 몸을 달싹거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군 하는 그 서글서글하고 친화력이 듬뿍 넘쳐나는 성격도 과히 개성적이라고 해야 할거요. 그러나 그보다 놀라운것은 그 녀자와 한동안 마주앉

아있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와 동년배라도 된듯이 젊어지는것을 느낀다는거요. 기실 이건 그 녀의사만이 지니고있는 독특한 매력이고 인간적인 미라고 나는 생각한다오.

하지만 그날만은 나의 혈압을 재고난 녀의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애어린 녀학생처럼 머리를 깊이 수그리는것이 아니겠소.

《전 아무래도 선생님의 담당의사를 그만두어야 할것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섬찍해지는 말이였소. 요행 이미 한두번만 들은 말이 아니여서 나는 모르는체하고 흔연한 자세로 대꾸할수밖에 없었지.

《의사선생은 또 그 말이요?》

《지금 선생님의 혈압수치가 얼만지 아십니까. 눈상태를 보니 어제 밤도 꼬박 새우며 글을 쓰셨군요. 그래가지고서야 아무리 약을 잡순들 또 제가 매일과 같이 검진을 다닌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늘게 떨리던 녀의사의 목소리가 차츰 항변조로 바뀌였소. 그의 눈가에 어느새 물기가 가랑가랑 맺혀있는것을 보자 나는 저으기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

었소.

《이런 일이 벌써 몇번째입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건강이 악화되여 불상사라도 생기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나라앞에, 인민들앞에 머리를 들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녀의사의 《질책》은 그치기는커녕 련발적으로 비발치며 날아들었소.

《혹시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이 자신개인에게 국한된것이라고 보시는게 아닙니까?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마구 혹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닌지요? 또 선생님께 그럴 권리가 있다고 자부하고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도 맵짠 《추궁》에 나는 그만 입이 얼어붙고말았소. 나의 무조건적인 《침묵》일변도가 어지간히 지속되자 마침내 녀의사도 지쳐버린듯 종시 입을 다물고말았소.

그 덕분에 한동안 고요가 깃들었지. 대신 녀의사의 흐느낌소리만 높아졌소.

나는 녀의사를 위로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못

이겨 한참만에 드디여 입을 열고말았소.

《의사선생이 방금 그 어떤 권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의무에 기초하고있지 않는 권리, 권리에 도취되여 망각된 의무… 이런 불균형에 토대한 권리라면 난 접수할수 없소. 용서하오. 난 굳이 의사선생과 론쟁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게 아니요.》

왜서인지 나의 입에서는 위로가 아닌 제나름의 주장이 흘러나왔는데 그 리유는 나도 미처 알수가 없었소.

그러나 그 어떤 마음속의 충동이 북받쳐오르기에 난 자신을 걷잡지 못하고 말을 계속 잇고야말았소.

《사실 난 이 말을 하고싶지 않았소. …의사선생도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근 20년이 되여오고있소. 그러는새에 나라의 크나큰 은덕으로 로당익장하던 우리 동지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있지. 어찌겠소, 세월을 이기는 장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하지만 림종을 앞두고 그들이 우리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소.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내 령구앞에 조화를 놓지 말아주오. 비록 한송이라도 말이요. 대신 통일이 되는 날에 조화가 아니라 경축의 꽃다발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주오. 정말 부탁이요.>

그래 의사선생은 그들이 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생각하오?》

나의 이 질문은 물론 그 어떤 대답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였소. 또 이 말은 그 녀의사 혼자에게만 하고싶은 말이 아니기도 했소.

《그때부터라고 꼭 찍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밤잠을 편히 잘 때가 거의나 없다오. 한것은 야밤삼경이 되면 이미 먼저 곁을 떠나간 동지들이 나를 찾군 하기때문이요.

…언제인가는 이젠 희생된지도 수십년이 된 최동지가 내앞에 불쑥 나타나더군. 남조선에서 우리가 옥중투쟁을 할 때 적들의 전향공작에 항거하여 자결한 동지가 말이요.

그에게 내가 우리들만 이렇게 조국의 품에 안겨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자 그는 도리여 이렇게 나를 질책하더군.

<왜 당신들만 받아안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오.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단두대에서, 철창속에서, 이름없는 산야에서, 절해고도와 무인지경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그 수많은 유명무명의 렬사들모두에게 차례진 명예이고 특전이 아니겠소. …다만 아쉬운건 우리가 그처럼 값높은 명예를 지녔건만 아직도 이 땅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너무나 장구하고 험난하다는거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닌 명예가 자랑스러운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울뿐이요. …나라의 통일이 이룩되는 그때라야 우린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게 될거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몫까지 합쳐 분투해주오. 우리의 짐까지 지우는것이 정말 미안하오.>

그때부터 난 식솔들이 다 잠든 깊은 밤이면 저 하늘가의 뭇별들을 바라보며 그가 남긴 당부를 생각하군 하오. 그럴 때면 그 무수한 별들이 자연계의 행성들이 아니라 최동지랑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모습으로 안겨오는게 아니겠소. 물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별들보다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듯이 내가

아는 얼굴들보다 모르는 모습들이 더 많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소.

그 모든 렬사들앞에 떳떳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후회없는 한생을 살아왔다고 자신을 위안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후회를 남겨야 하겠는가 말이요. …》

나의 이 말에 녀의사는 머리를 조용히 숙이더니 눈굽을 훔치는것이였소. 나는 공연히 그를 울린것만 같아 온종일 마음이 내려가지 않았소. …

교수선생, 난 우리 집에서 선생과 만났을 때 나의 경솔한 행동때문에 선생의 기분을 흐리게 한것이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되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싶소.

지금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인생의 값진 명예와 행복을 누려 마땅하다고 하고있소. 허나 사실 조국과 인민이 안겨준 명예와 행복이기에 그 모든것까지도 최대의 애국인 통일을 위해 바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소.

물론 조국통일은 우리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성취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나도 모르는바는 아니

요. 그러나 지금 민족분렬의 한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가고 그 후손들의 세대도 계속 바뀌고있지 않소. 이들이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오직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의사와 단합된 힘으로만 이룰수 있다는 굳센 의지를 간직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도 모르지 않을거요.

어찌 그뿐이겠소. 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조국의 귀중한 아들딸들이 어떻게 죽음의 언덕들을 넘었고 피의 대하를 헤쳐왔는지 또 왜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길을 이어가야만 하는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것보다 더 숭고하고 긴절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소. 하기에 그 누가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 일감을 스스로 의무로 맡아안았고 이 길에서는 조금도 지체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나와 우리 동지들이요.

만일 이것을 순간이나마 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엔 우리의 명예가 빛나는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량심속엔 지울수 없는 후회만이

남게 될거요. …

참, 중요한걸 놓칠번했소. 전번에 교수선생이 나한테 제의했던 해외에서의 도서출판문제 말이요. 먼저 선생에게 량해를 구할게 있소. 글쎄, 내딴에는 명성과 재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저술한 도서라고 해서 처분권은 자기한테만 있는듯이 여기면서 선생의 훌륭한 의견을 거절했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말이요. …

난 내가 집필한 도서들이 내 혼자만의 도서라고 생각지 않소. 그 도서의 주인공들은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해온 우리 겨레들이며 필자 역시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조국의 아들딸들모두라고 해야 할거요.

이런 의미에서 난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심했소. 그러되 조건부가 있소. 도서출판과 관련된 모든 수익금은 조국의 이름으로 선생의 출판사에 기증한다는거요.

난 교수선생이 그 자금을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의 통일애국사업에 유용하게 리용해준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소. 그건 나의 소원이기도 하오. 인차 탈고

가 되는 차제로 선생에게 보내려고 하니 그리 알아 주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기 바라오. …

【시】

대청땅은 길이 전해가리라(외 1편)

김 송 림

드넓은 벌에 일하러 나갈 때도
하루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대청리사람들 무심히 지나지 못하는
누구나 선뜻
발걸음 떼지 못하는 곳이 있어라

한해전 우리 어버이
질적한 감탕길 헤쳐 찾아오신 그날
그이의 야전차
길섶의 논에 미끄러졌던 곳
지금도 그곳에 서면 눈물부터 앞서는
잊을수 없는 그 자리

얼마나 길이 험했으면
거듭 공회전하는 차바퀴에

흙탕길만 더 깊이 패여졌으랴
용을 써도 전진하지 못하는 야전차엔
온통 흙탕물이 튀여오르고…

뒤늦게야 어푸러질듯 달려온 마을사람들
그 광경앞에 너무도 억이 막혀
삼가 올리자던 인사는
목이 꺽 메여 안나오고
눈물은 쏟아져 앞을 가리웠으니

어깨들을 들이밀어 한치 또 한치
마침내 진창속에서 빠져나와
시뻘건 흙탕물 헤가르는 그이 야전차
하늘이 우는가 땅이 우는가
온 대청리가 눈물로 따라섰더라

험한 진창길에 찍혀진 헌신의 자욱
눈물젖은 가슴들에 어이 지워지랴
날과 달 흘러도 정녕 잊을수 없는
그날의 질적한 흙탕길

오늘도 대청리사람들
그들의 가슴엔 마르지 않았거니

여기서 사람들
자기의 량심을 세워보노라
누리는 행복 커갈수록
포전에 펼쳐가는 푸른 주단마다에
한포기 벼모라도 빈자리는 없었는가

야전차가 미끄러져 빠져들던 곳
지금은 그 흔적 찾아볼수 없어도
사람들 뜨거운 격정 터치는 곳이여
어버이사랑의 그 자욱
대청땅은 잊지 않으리라 길이 전해가리라

아들에게 속삭이며

장난이 하도 세차
늘 잠자리에서도
뽈이며 놀이감총을 그러안고서야
잠에 들군 하던 내 아들

오늘은 《해바라기》학용품
가슴에 꼭 껴안고 잠들었구나
뜻깊은 광명성절 우리 어버이
학령전어린이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학용품을

무슨 꿈을 꾸는것이냐
잠결에도 빙그레 웃음짓는 너
갖가지 멋진 그 학용품으로
해님만을 따르는 해바라기 그리는것일가

또박또박 우리 글씨
곱게 익혀가는것일가

깊어가는 이밤처럼
생각도 깊어만지누나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
기껏 가닿았다면 놀이감뿐이였는데
경애하는 그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까지 헤아려
《해바라기》학용품 안겨주시였으니

천사만사 나라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그이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손에 쥐여질 학용품
그리도 소중히 간직되여있은줄
이 나라 어린이들 다 안겨있은줄
이 아버지 어머니도 미처 다는 몰랐구나

아직은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도 모르는 철부지

어떤 품에 네가 안겨 고운 꿈 꾸는지
어떤 사랑이 너에게 리상과 포부 펼쳐주시는지
아들아, 다 자라면
그 사랑 그 행복 다 알가

아, 꿈보다 아름다운 너의 래일엔
어떤 눈물겨운 사랑이 또 기다리고있을가
《해바라기》학용품 품고 단잠 든 내 아들
행복을 품어안았구나
밝고밝은 래일의 기쁨을 품었구나

【시】

선생님 추억(외 1편)

유 현 의

불러 가슴도 뜨거워지는
아, 선생님
이제는 반백을 이셨건만
어쩐지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선생님은 단발머리 처녀교원
모교를 찾으면 웃으며 우릴 반겨주실듯

늘 봐야 백묵가루 하얗게 묻어있던
선생님의 손이 아니였습니까
칠판에 써가시던 그 글씨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정겨운 목소린 추억의 심금 울려줍니다

교탁에서 굽어보시던 그 눈빛

어쩌면 철없던 우리 마음
다 꿰뚫어보셨습니까
바른길 가라 그 눈빛으로 비쳐주던
그 길이 우리 걸어온 성장의 나날입니다

못다 푼 숙제장 그 여백을 두고
선생님은 결코 너그러움 몰랐습니다
곁눈질로 베껴쓴 시험지 한장을 놓고
왜 그리도 아프게 욕하셨던지
그때엔 미처 선생님진정 다 알수 없었습니다

졸업의 그날엔
어느덧 자신보다 어깨가 더 넓어진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던 선생님
저저마다 우리 드린 그 많은 꽃다발
그 무슨 보물인양 정히 안고계셨습니다

과학의 원리만을 가르친것이겠습니까
자연의 공식만을 배워준것이겠습니까

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라고
참되게 사는 법을 가르친것입니다
인생의 정의를 배워준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그 시절은 아득해도
교정과 더불어 잊을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정에서 후대들을 위해
교단을 내려서지 않으시는 선생님
교육자 그 삶이 아마 제일 큰 행복이신듯

아, 나라의 역군으로 기둥감으로
대바르게 키워주신 고마운 스승
오늘도 우리 삶 이끌어주시며
제자들 마음속에 떠나신적 없습니다
선생님 추억은 참된 삶의 자양분입니다

다시 불러보자, 봄순아

개나리 살구꽃 다투어 피는 봄
오늘은 딱친구 봄순이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 이루는 날
묻고싶구나 봄순아
어쩌면 너 쉽지 않은 결심 내렸더냐

처녀적엔 수집음 많다지만
류달리 부끄럼 잘 타던 봄순아
가까운 나도 미처 널 다 몰랐구나
영예군인총각과 일생을 같이할
뜨거운 마음 가슴에 깊이 묻고있은줄

축하의 꽃다발 아름차게 받고
꽃보다 더 곱게 웃는 봄순이
자기는 사내중의 사내와 산다고

동지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이는
일생의 길동무도 열렬히 사랑한다고
터놓는 너의 진심 이 가슴 울리누나

그 어느 처녀인들 바라지 않으랴
땅크같이 억세고 듬직한 사나이와
일생을 하루같이 봄날에 살기를
사랑의 열정으로 피우는 생활의 꽃이
자기 인생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하지만 너는 봄에 살기만을 바랬더냐
조국이 떠받들고 누구나 존경하는
영예군인 그의 삶 꽃피우려
쉽지 않은 일생의 선택을 했거니
그 선택이 너에겐 그지없는 행복이였구나

자랑스러워라
동지들 위해 한몸 서슴없이 내댄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된 내 딱친구
사랑은 바로 이런것이 아닐가

행복의 진가는 바로 이런것 아닐가

다시 불러보자 봄순아
시대가 알고 축복하는 너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준
너처럼 나도 지니고 살련다
뜨거운 심장을 불타는 사랑을

【시초】

이 땅을 사랑하라!

ㅡ농촌으로 진출한 남포시안의 140여명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ㅡ

김 태 룡

아들아, 어서 떠나거라

대견하다고 해야 할지
어엿하고 름름하다 해야 할지
아들아, 그저 눈물만 샘솟누나
농촌으로 탄원해가는 너의 모습
이 어머니의 긍지이고 자랑이여서

자식의 맘 낳은 어머니가 잘 안다지만
미처 다는 몰랐구나
네 궁냥이 그리도 깊었던줄을
그처럼 깊은 생각 품고있었던줄을

시내에서 나서자라
흙이란 좀해서 손에 묻혀본적 없었던 너
꽃화분도 변변히 가꿔보지 못한 네가
전야의 곡식을 심어가꾸러 떠난다니
정말 다 자랐구나 내 아들아

아침이면 자명종시계가 아닌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익숙해지리라
눈에 익고 손에 설은 농사일에
장알이 박히고 얼굴도 검실해지리라
너의 어깨도 사내답게 넓어지리라

어찌 그뿐이겠느냐
밥상에서 무심히 들던 수저
이제는 밥술의 무게를 알게 되리라
땅과 말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벼이삭의 노래소리도 알아듣게 되리라

자식을 믿지 않는 어머니 없듯
나는 너를 굳게 믿는다

바람세찬 들에서 눈비를 맞는대도
땅을 걸구는 일 말처럼 쉽지 않다 해도
결코 오늘의 선택 후회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나라의 농사를 두고
그처럼 마음도 많이 쓰시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뜻 받들어 탄원한 아들아
다진 맘 변함없이 꿋꿋하고 억세게
청춘의 자서전 황금벌에 새겨가거라

네 비록 이 어머니품에서 떠난다지만
어머니대지가 너를 품어준단다
어서 떠나거라 내 아들아
웃으며 네가 떠난 그 길로
가을의 풍년소식 보내여다오
우리 어버이 기뻐하시게

같이 가자요

몰랐다 안해는
알수 없었다 안해는
어찌하여 며칠밤을 새워가며
남편이 잠을 설치는것인지
침묵속에 묻은 사연은 무엇인지

함께 사는 안해에게도 숨길게 있담
서운도 하고 야속하기도 한 마음
며칠이 지나서야 안해는 알았다
농촌으로 탄원할 결심을 품었건만
차마 그 말 떼기 힘들었던 남편의 마음

안해의 손을 잡고 남편이 하는 말
청년동맹일군인 자신에게 물었다더라
농촌의 한 청년이
자기라면 농촌에 탄원할수 있는가고
그런 용단 쉬이 내릴수 있겠는가고

안해는 생각했더라 농촌청년의 그 물음
그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도 묻는 말
물론 쉽지는 않아라
도시를 떠나 농촌마을로 간다는것이
정들은 모든것 뒤에 두고
생소한 고장에 뿌리내린다는것이

말그대로 사람도 산천도 낯설리라
포장길에 익숙된 발걸음 농촌길에 서툴리라
벌에 살고 땅을 걸구는 농사일
말처럼 쉬우랴 헐치는 않으리라

하지만 그 땅은 우리의 어버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두고
당대회의 그 연단에서 심금 터놓으시며
마음속에 품어보신 소중한 땅
남편의 손 부여잡고 안해가 하는 말
ㅡ같이 가자요!

자랑스러웠다 남편의 그 결심

남편의 손을 두손으로 꼭 부여잡은 안해
이렇게 안해는 남편과 함께
농촌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고
룡강의 옥토벌로 달려나갔거니

긍지높은 이들의 그 모습
떠나온 곳에선 추억속에 그려보고
달려간 곳에선 꽃처럼 아름다워라
아, 사회주의대지우에 뿌리를 내린
두송이 꽃이여 향기도 그윽하여라

한장의 사진앞에서

래일이면 농촌으로 떠나는 날
나서자란 고향집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는 날
그래서 생각은 더욱 깊어지는가
나는 섰노라 색날은 사진앞에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고싶어

가렬한 전화의 나날
할아버지는 용약 전선으로 탄원했고
오늘 시대의 부름 받들어
나는 선뜻 농촌으로 탄원하거니
대견해서인가 사진속에서 웃는 할아버지

자장가처럼 들었었지
할아버지의 처절했던 전쟁이야기
물이 아니라 용암이 흘렀고
불비가 쏟아져내린 락동강이며
숨진 전우 묻혀있는 이름모를 산야여

한치의 땅을 두고 목숨을 내댄
열혈의 청춘들 그 하많은 이름들을
나는 오늘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있다
할아버지와 전우들 생사 걸고 지켜낸 고지
그 고지의 넓이도 나는 다 모르고있다

전화의 나날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귀중한 촌토

나는 그 땅을 가꾸려 떠나거니
지켜낸 땅을 가꾸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들 선대들앞에 어찌 머리 들랴

어이 알랴
내가 달려갈 그 농장벌 어디엔가
무명의 영웅 흘린 피 스며있지 않은지
황금이삭 떠받든 그 땅밑에
전화의 용사들 그 넋이 잠들어있지 않은지

그 땅에서 우리 행복의 열매만을 바라랴
그 땅을 가꾸는 사람 따로 있던가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 달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
영웅의 넋을 이어받은 후손들이거니

나는 농촌으로 탄원하였다
전선으로 탄원했던 할아버지처럼
조국을 지켜 격멸의 길 떠나던 선대들처럼
나도 떠나리라 용사처럼 떠나리라
조국을 받들어 농업전선으로

탄 원 증 서

증서는 크지 않아도
쌀로써 내 나라 받들어갈
나의 한생이 어려있어라
씌여있는 글발은 비록 길지 않아도
천만마디로 대신 못할 나의 맹세가 있다

그 무슨 자랑으로 내보이는
지참품이 아니여라 이 증서
두손에 받쳐 가벼움은
증서의 가치를 내 다는 모른다는것
이 증서의 무게 심장의 무게로 느껴야
내 실농군으로 떳떳이 산다는것

펼쳐 땅에 바치는 나의 량심 보여오고
지니여 힘이 되고 고무가 되는 증서
땅을 기름지워 꺼지게 만풍만을 안아올
나의 한생은 언제나 이 증서와 함께

내 생의 자서전 이 증서가 대신하리라

이 땅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 탄원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했을
정이 없고 소중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떠나지도 않았을
농촌탄원의 길로 청년들은 떠났다

청춘을 바쳐 가꿔가리라
땀과 열정 한생도 기꺼이 바치리라
뜻도 높이 세우고 그들이 달려간 전야
그것은 흔하디흔한 흙이였던가
곡식을 자래우는 무심한 토양이던가

물어보라, 140여명 청년들에게
땅이란 무엇인가를
대답은 단 한마디 사랑이라 하거니
사랑하기에 한생을 살리라는

사랑하기에 정들여 가꾸리라는
애오라지 그 마음 안고 달려간 땅이여

그들의 가슴속엔 새겨져있구나
새로 육종한 팔뚝같은 강냉이이삭
그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다 하신
원수님의 환하신 그 영상이

포전들에서 들려오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정말 듣기 좋다고
만풍년의 노래소리, 사회주의승리의 개가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나 같다 하시던
그이의 음성을 그들은 잊지 못해

정녕 그들에게 있어 소원이라면
자기들이 알알이 가꾼 벼바다 보시며
우리 어버이 만시름 풀고 환히 웃으시는것

더는 농사일때문에 걱정 안하시게
해마다 만풍의 소식 그이께 아뢰이는것

땅은 말 없어도 기울이는 정은 알아
바친 노력과 헌신만큼 열매를 주나니
땅과 함께 한생을 살리라 언약하였기에
농촌으로 떠나간 그들
그들의 가슴엔 사랑이 끓고있거니

시대가 알고 땅이 아는 농촌탄원자들
그들이 청춘이여서 땅도 청춘이리라
오, 사람들이여
장한 아들딸들을 사랑하라
그들처럼 이 땅을 사랑하라!

【시】

너의 이름을

김 동 진(재중동포)

찬바람 천리길
빨갛게 달아오른 둥근달이
정월 보름산에 둥실 솟아오르면
사뭇 그립던 내 사랑같아
님아ㅡ 하고 소리쳐본다!

선조들의 하얀 뼈 거기 묻혀
하늘다리 무지개다리 세워놓고
남몰래 넘어가고 넘어오는
향수에 젖은 꿈새의 날개

고국이란
그 이름 옥돌처럼 가슴에 안고
울며웃으며 살아가는 한세상

한번쯤 그 품에 안기고싶다는건
님아, 그것은
두고 온 선산 칡뿌리마저
너의 이름으로 살아있기때문ㅡ

고운 얼굴의 하늘
고운 자태의 땅
님아, 네 이름 아프게 불러보면
목메이게 안겨오는 해동의 강산이
새벽이슬처럼 반짝인다…

【시】

할머니의 전설

최 금 화(재중동포)

하아얀 가리마에 하아얀 은비녀
어깨너머 지으시던 조선옷저고리
할머니는 날마다 돌리고 돌리셨다
까만색 윤기나는 재봉침 손잡이를

일하느라 바늘에 찔리우고 찔려서
터실터실 거칠어진 그 아픈 손마디로
조선옷을 어루쓸며 떠올리던 엷은 미소
할머니는 무슨 꿈을 꾸시였을가?

눈물젖은 두만강 옛말에 푹 빠져
새별눈 초롱초롱 열심히 귀담아듣던
철없던 코흘리개 어린시절 옛 추억
오늘도 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주름투성이 그 얼굴에 사라진 미소
가시는 림종의 마지막날까지도
손에서 종일 놓지 못하셨던 일감들
오로지 조선옷만 지으셨던 그 모습…

매일같이 돌리시던 앉은뱅이재봉침
재깍재깍 그 노래도 멎은지 오래고
한평생 묵묵히 지켜오신 하얀 령혼
하아얀 메아리로 오늘도 맴돌이친다

조선옷 한벌에 하아얀 전설 한컬레
한많은 그 가슴에 응어리진 천만사연
아름다운 조선옷으로 그리움을 푸시던
아아아, 오늘도 사무치게 그리운 내 할머니…

【동서】

우린 한골육(외 1편)

홍 용 암(재중동포)

말도 하나
글도 하나

백두산맥 그 줄기 뻗어내려
태백산, 한나산까지
강토도 하나
시조도 단 한분
고조선 단군할아버지
모두가 배달겨레 그 후손들
피줄도 하나래요

너는 뼈, 그는 살, 나는 피
한데 붙은 우리는 한몸이래요
뼈와 살을 갈라내고 피를 빼면

어찌 살랴 죽고야말 우리들
뭉쳐야만 살수 있는 우린 한골육…

우리가 어른이 되면

《1+1=2》
산수적계산이니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지만

하지만
분단된 북과 남 합치면
《1+1=1》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우리가 만약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될거야!

【수필】

고마운 우리 집

리 진 홍

집!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삶의 보금자리, 행복의 터전, 사랑으로 가꿔가는 요람이라고 생각한다.

인민의 행복한 웃음과 랑만이 그칠새 없는 우리 조국땅에서 집이란 그대로 만복이 움터나는 인간화원이다.

요즘에 와서 우리 가정의 저녁식사시간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리군 한다.

동생이 달려나간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TV로 매일과 같이 보도되고있기때문이다.

어제도 례외가 아니였다.

낮에 밤을 이어 철야전을 벌리면서도 완공의 날

을 그려보면 조금도 힘든줄을 모르겠다며 《단숨에》의 기상으로 초고층살림집골조건물의 정점에 제일먼저 승전의 기발을 꽂을 맹세를 다지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목소리가 나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저녁늦게 들어온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건설현장에서 식사시간마저 잊고 분투하며 교대를 마치고도 성차지 않아 현장에 남아 혁신하고있는 건설자들은 또 그 얼마인가!

불꽃이 튀고 번개가 이는듯한 건설현장의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금시 황홀하게 일떠선 거리와 희한한 새 집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환희로운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는듯싶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에 의하여 수도의 중심부에만 해도 어제는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오늘은 송신, 송화지구에 새 거리가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다.

죽을힘을 다해 벌어도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한갖 꿈일뿐이라고 개탄하며 삶마저 포기하는것이 오늘날 그 사회의 현실이다.

사회계층의 1%도 안되는 부유층들은 몇채나 되는 집을 소유하고 흥청거리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이 없어 남의 집에서 세를 내고 살고있으며 그마저 돈이 없으면 한지에 내몰리우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인것이다.

누구나 국가가 무료로 배려해준 자기 집에서 아무 근심없이 자기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내 나라, 쓰고사는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제도에서 우리가 살고있다.

그렇다.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집, 천만인민모두가 아무 근심없이 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이다.

은혜로운 그 품이 있어 이 땅우에 행복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꽃펴날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집을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이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다하리라.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밤이였다.

【수필】

새 가정의 계획

리 철 준

얼마전에 나는 아버지가 되였다.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행복을 받아안는 가슴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피줄을 이어 세상에 태여난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때일것이다.

그 기쁨을 나는 평양산원에서 누리게 되였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우리 부부는 새 가정을 이룬 첫날밤 행복의 계획을 작성하였다.

1년후에는 귀여운 옥동자를, 2년후에는 내가 박사학위를, 3년후에는 안해가 원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

밤이 새도록 주고받는 우리 가정의 꿈과 희망은 끝이 없었다.

그 첫번째 계획이 평양산원에서 드디여 실현된것

이다.

지금도 나는 꽃다발을 안고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오르던 안해의 모습과 평양산원을 정답게 바라보며 귀속말로 그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친정집에서 우리의 첫 계획을 실현시켜주었어요.》

순간 얼떠름했던 나는 그만에야 이마를 쳤다.

정말 그랬다. 우리 녀성들은 누구나 자기의 귀여운 자식을 받아주는 평양산원을 친정집이라 부르고 있다.

그 사랑의 집에서 내 안해가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아기를 낳고 은정넘친 산꿀과 영양식품을 받아안으며 행복의 나날을 보냈으니 참으로 평양산원은 우리들의 첫 가정계획을 실현시켜준 고마운 곳이기도 하였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 가정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나의 눈앞에는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남조선 사회의 실상을 폭로한 기사의 글줄들이 떠올랐다.

련애, 결혼, 출산 이 세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가 나날이 늘어나 사회적인 난문제로 확산되고있고 여기에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더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이 비관에 젖은 청년들속에서 류행어처럼 떠돌며 이 모든것을 포기한 세대를 《N포세대》라고 한다는것이였다.

정녕 참담한 사회현실과 그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처지와 정신상태에 대한 집약적인 평가가 담겨져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이고 기쁨일진대 이것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들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청년들이다.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것이다.

모든것을 포기한 《N포세대》! 이 말은 결국 인생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요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피와 땀을 바치여도 꿈과 희망은

도저히 이룰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것이 황금만능의 그 사회가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한 썩고 병든 사회에서 새 가정이란 한갖 불행의 씨앗으로밖에 될수 없고 희망찬 계획이란 애초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론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그렇다! 꿈이란 꾼다고 하여 꽃펴나는것이 아니며 계획 역시 세운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 꿈을 꽃펴줄 따뜻한 해빛이 없다면, 그 계획을 펼쳐줄 비옥한 토양이 없다면 영영 꽃피울수도 실현될수도 없다.

그 해빛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며 그 토양은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인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생을 사랑한다.

풍요한 땅에 활짝 피여나는 꽃처럼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이 꽃펴나는 우리의 삶을 끝없이 사랑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그대로 나라의 시책으로 구현되고 그 실현도 인민의 편의와 행복에로 전적으로 지향되는 고마운 우리 제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

실로 펼쳐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사랑하고 빛내여가리라ㅡ

평양산원은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갔어도 승용차는 나와 안해와 귀여운 아들애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다가올 더 큰 행복의 천만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있었다.

그날 안해는 나에게 말했다.

《계획을 하나 또 세우자요!》

【수필】

대추나무를 심으며

장 수 봉

봄철이 발벰발벰 다가오던 지난 3월초였다.

교외의 한 농장마을에 취재차로 나갔던 나는 식수절을 맞으며 농장원들과 함께 마을뒤산에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내가 심은것은 어린 대추나무였다. 밑거름과 물을 넉넉히 주고 가지의 향방까지 가늠해보면서 나무를 심느라 했지만 왜선지 다 심고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린나무의 앙상한 모양을 보니 꽤 구실을 할가 하는 위구심을 털어버릴수 없었던것이다. 아마 겨울을 나느라 까칠해진데다가 뾰족한 가시들까지 나있어 더 그리 보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옆에 심은 사과나무며 배나무들과 대비해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그런 속마음을 넘겨짚었는

지 한쪽에서 일을 거들어주던 마을로인이 다가왔다.

《대추나무는 거의 초여름이 되여서야 잎이 돋는답니다. 다른 나무들이 승벽내기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동안에도 마치 죽은것처럼 늦장을 부리지요. 그래서 대추나무엔 <량반나무>라는 별명까지 달려있는걸요. …》

이런 말을 하며 로인은 대추나무에 대해 아는껏 들려주는것이였다.

대추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재배력사를 가진 과일나무의 하나라고 한다. 어린 가지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은 점차 나무가 굵어지면서 없어지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여갈 때 쓰는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라는 말도 옛 시골풍경에서 나온것이다.

하지만 그런 겉모양과는 달리 대추는 오랜 세월 복숭아, 추리, 살구, 밤과 함께 오과의 하나로 귀한 대접을 받아온 과일이다.

우리 속담에 《량반 대추 한개가 아침해장》, 《대추씨를 물고 30리를 간다.》, 《대추 세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옛 기록들에도 대추는 흉년이 들 때에는 구황식물

로, 전시에는 군량으로 널리 리용되였다고 씌여있다. 또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고들 말하는데 그만큼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뜻일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고사도 대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옛적에 한 나무군이 도끼를 메고 산속깊이 들어가니 난데없는 두 백발로인이 고목나무아래서 바둑을 두고있었다. 나무군은 호기심이 동해 로인들이 집어먹다가 건네주는 열매를 받아먹으며 넋을 잃고 바둑구경을 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어 내려가자고 보니 이게 웬 일인가. 도끼자루가 썩어빠져있는게 아닌가. 허둥지둥 마을로 내려가니 자기가 살던 집은 온데간데 없어 마을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집의 7대조가 200년전에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것이다. 그때 나무군이 백발로인들에게 받아먹은 열매가 다름아닌 대추였다고 한다. 결국 대추는 장생불사하는 신선들의 과일이라는 의미다.

하긴 옛날 임금에게 진상하는 과일중에서 첫번째

로 꼽는것이 대추였다니 그저 옛말이라고만 웃어넘길 고사는 아닌듯싶다.

《동의보감》에도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 오래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고 소개되여있다.

대추는 약물의 독성과 자극을 덜어주고 부작용을 중화시켜주는것으로 하여 감초와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고려약을 달일 때 꼭 들어가며 삼계탕 등 보신음식을 만들 때에도 의례히 대추가 빠지지 않는다.

로약자에게는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왔고 소화가 잘 안되는데 효과가 있는가 하면 진정작용도 뛰여나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도 좋은 등 그 약효를 이루 다 꼽기 힘들 정도이다.

약밥, 대추밥, 대추전병, 대추정과 등에서 보다싶이 대추는 전통음식들에도 밤과 함께 널리 쓰이여왔고 《조률리시》라 하여 제상의 과일자리에도 맨 첫자리에 오르군 하였다.

흔히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긴 사람을 대추방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키가 작고 오돌진 사람은 대추씨

같다고 한다. 그런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대추나무는 박달나무 못지 않게 굳을뿐아니라 벌레가 잘 안먹고 빛갈도 고운 붉은밤빛이여서 가구나 판목, 떡메, 도장, 목탁, 불상 등을 만드는데 쓰이여왔다.

그날 로인이 들려준 대추나무의 세가지 특징도 퍽 흥미로웠다.

우선 꽃이 하나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는다는것이다. 잎이 돋기도 전에 야단스럽게 다투어 피는 복숭아꽃이나 살구꽃과 달리 대추나무꽃은 비록 잎이 다 나오고나서야 삼복철에 뒤늦게 피지만 한번 피여나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는 나무 한그루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열리는것이고 셋째는 과일씨가운데서 대추씨가 제일 단단하다는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대추를 풍요와 다산, 다남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여겨왔고 혼례식날 새며느리의 첫절을 받은 시어머니가 폐백상에서 대추를 집어 며느리에게 안겨주던 까닭을 짐작할수 있다.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심히 심은 대추나

무 하나에도 그렇듯 깊은 유래와 하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대추나무의 꽃은 뒤늦게 피여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말이 왜서인지 나의 뇌리에서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대추나무가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무언의 암시처럼 느껴졌던것이다.

사랑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가. 봄날의 짧은 시절에 화사한 멋만 뽐내고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자태는 수수해도 꾸준함과 근실함으로 끝끝내 열매를 맺고서야 스러지는 대추꽃처럼, 세월이 오래가도 속이 굳고 단단해서 좀이 들지 않는 대추나무처럼 말이다.

문득 나의 눈앞에 전날에 TV화면으로 본 벽성군 내호리의 한 산림감독원의 무뚝뚝한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한창때도 아닌 쉰고개의 나이에 조국의 산발을 더욱 푸르게 하는 일에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내호리로 찾아왔다는 제대군관.

비오나 눈오나 하루도 쉼없이 가파로운 산길을 오르내리는 그의 등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산림감독

원의 혹》이라고 부르는 나무모배낭이 지워져있었고 품안에는 심은 나무들과 심어야 할 나무들의 품종과 수량을 적어넣군 하는 수첩이 떠날줄 몰랐으니 그 수첩이 보풀이 일고 헐어갈수록 내호리의 산발은 점점 푸르러만 갔다고 한다.

나무를 심으러 산에 오르다가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통에 되돌아온 다른 한 감독원에게 그가 했다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담당림구역에 빈구석이 있다는것은 산림감독원의 마음속에 빈구석이 있다는걸 의미하지 않는가고, 산속에서 혼자 일하는 감독원일수록 깨끗한 량심으로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고 질책했다는 이야기는 나의 가슴속에 후더운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정녕 대추나무를 련상케 하는 사람이 아닐가싶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듯 진실하고 뜨겁기에 내호리의 산발마다에는 푸른 숲이 그리도 무성하게 설레이는것이고 조국은 그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것이 아니랴.

이런 애국자가 어찌 그 한사람뿐이랴. 사연깊은 장자산의 두그루 잣나무를 온 나라에 퍼친 강계시

의 한 녀성과 그의 가족들이며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숲이 우거진 수려한 산천으로 전변시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회창군사람들을 비롯하여 내 나라의 산과 들마다에는 무수한 애국의 마음들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그렇게 심장을 바쳐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머지않아 조국은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리라는 뿌듯한 예감을 느끼며 나는 그날 이윽토록 대추나무앞에 서있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라.

정녕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이 다시금 되새겨지던 시각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나도 어린 대추나무 한그루를 가슴속에 정히 심었다.

【수필】

박 꽃

송 미 자(재중동포)

두만강 여울소리 들려오는 서쪽기슭, 주렁주렁 오얏이 무르익은 언덕에 남향하고 앉은 오붓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동구밖을 마주하고 나의 집이 있는데 흙담으로 둘러친 동쪽 절반에 해마다 할머니는 박을 심으셨다.

지금은 어머니가 소담하게 피여난 하얀 박꽃속에 할머니의 념원을 기리며 박꽃을 가꾸고계신다.

내가 온다는 기별을 받고 하루종일 동구밖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을 어머니, 어느 사이 먼발치에서 나를 알아보고 하얗게 센 머리에 쓰셨던 흰 머리수건을 벗어쥐고 엎어질듯 달려오신다.

《어머니!—》

《아니, 이 고열에 일도 바쁜데 오기는 왜 오느냐?》

이제나저제나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고도 겉으로는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노라니 가슴이 찡해진다. 피땀으로 키운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고는 매일 하얀 박꽃과 같이 흙담너머로 애타게 기다리는것이 어머니란 이름을 가진 이들의 숙명인가?

쨍쨍 내리쬐는 해빛아래 흙담우에 오른 박넝쿨이 나의 시야를 당긴다. 엉킨 넝쿨사이로 피여오른 하얀 박꽃이 청초하게 웃는다.

《어머니, 올해도 박꽃이 곱게 피였슴다.》

《그래, 곱게 폈구나! 지난밤에는 니가 온다고 해서 그런 꿈을 꾸었나? 니 할머니와 생전 보지도 못한 니 큰아버지가 오셨더라. … 이봐라, 해빛을 싫어하는 꽃이니깐 벌써 시드는구나.》

아니나다를가 어떤 꽃은 어느 사이 앙증스레 꽃잎을 오무리고 신음하는듯한 느낌을 주었다.

무더운 여름이라 해빛은 벌써 빨갛게 단 송곳같은 해살로 박꽃을 마구 찌른다. 그 송곳질에 아픈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는 박꽃의 모양새가 민망스럽게 안겨온다. 앙증스레 시든 꽃이 지루한 기다림

에 질린 할머니의 비애에 찬 얼굴로 방불히 바뀐다.

《이 꽃은 어머니 꽃이고 이 꽃은 할머니 꽃임다.》

철부지시절에 박을 가꾸는 할머니와 어머니사이에서 뛰놀며 하던 말이 생각나 되뇌였다. 늙었어도 청각만은 예민한 어머니는 어느 사이 내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신다.

《후유!ㅡ 그래 할머니 꽃이지.》

분명 어머니도 할머니생각을 하고계셨나 본다.

아니, 한시도 잊지 않고계시리라! 어찌 잊을수 있을가. 수십년, 피와 뼈만이 아닌 령혼 깊숙이 배인 그 운명의 기다림을 어찌 잊는단 말인가…

내가 세상을 알아서부터 우리 집 흙담우에는 그 어느 한해도 박꽃이 피지 않은 해가 없었다. 동네로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부터 할머니는 해마다 이 흙담밑에 박을 심으셨기에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바가지집》이라고 불렀단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잘 열린 크고작은 박을 허기영차 켜서는 친척들과 이웃에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해부터 새로 나온 비닐바가지의 충

격으로 박바가지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연히 박을 심으셨다.

《할머니, 누구도 박바가지를 왼눈으로도 보지 않는데 왜서 박은 자꾸 심슴둥?》

할머니는 나의 말은 못들은척하신다.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박을 가꾸셨다. 할머니는 늘 흙담너머로 박꽃을 보시면서 생각에 잠기군 하셨다. 그리고 근근득식으로 이어가는 살림에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박바가지에 담아가지고 《행여나… 불쑥 들어오겠는지?》 하면서 고간에 감추어두는것이였다.

나는 할머니가 타향살이하는 나의 아버지를 기다리시는줄로만 알았다. 십년이 지나 아버지의 귀가와 함께 할머니의 고달픈 기다림이 끝난줄로만 알았었는데 예전의 행동은 습관이 되여버린듯 계속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그때도 박꽃이 한창 피는 때였다. 팔십고령도 훨씬 넘긴 할머니는 나의 손에 의지하여 두만강이 굽이치는 산언덕까지 가셔서 이마에 손을 얹고 강건너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누군가

를 찾으셨다. 그리고는 산너머 남쪽하늘을 넋잃고 바라보는것이였다. 눈물도 말라버린 비애만이 꽉 찬 할머니의 두눈은 얼마나 처량하였던지 지금도 내 기억속에 각인되여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때는 가정의 수난의 력사를 어린 나로서는 알지 못하였다. 황천길을 밟기 전에 보고싶은 자식들을 찾고계시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조선에 살고있는 큰며느리와 큰손녀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생사를 알길없는 큰아들을 기다리고계셨다.

해방이 금방 되자 38°선이남에 있는 고향땅으로 가면서 후에 부모처자 데리러 오겠다고 떠난 큰아들은 오늘까지 종무소식, 어린 아들 둘을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젖먹이를 업고 남편을 찾아 떠난 큰며느리는 38°선이 외세에 의해 철조망으로 막히자 그것이 인차 열릴것으로 믿고 북에 남고말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없는 손자들을 맡아 키우면서 세동강난 이 가정의 상봉을 그 얼마나 고대하셨던가.

그러면서도 자라나는 손자들에게 그 어떤 그늘이라도 생길가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할머니, 큰오빠네 아버진 어디 있슴둥? 큰어머니와 큰언닌 어째서 조선에 있슴둥?》

《그런걸 물어보면 나쁜 애다. 알았냐?》

할머니의 기색은 여간 근엄하지 않으셨다. 대신 할머니는 암장에서 흐르는 용암같은 피를 홀로 가슴깊이에서 말리우면서 깊은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군 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 새벽녘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물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오늘도 나의 기억속에 새록새록 새겨져있다.

《올해도 박꽃이 잘 피였수다. 미자어미, 지난번에 조선에 갔다가 큰며느리에게서 가져온 박씨가 종자가 좋은것 같수!》

《큰며느리두 해마다 박을 심는다지 않슴둥. 한뉘 올수도 없는 남정을 기다리는것두 어이없는 일 같은데 차마 옮겨앉으라는 말도 못하고…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후유!—》

《그래도 모르지. 어느날 통일이 되여 서로 만나

는 날이 올지. … 그러면 제 식구들 다섯이 오붓이 만나 세상 부럼없이 살텐데…》

《꿈같은 소릴…》

《…큰사람 떠날 때두 이맘때였습지. 박꽃이 한창이였재임둥. 오늘까지 딱 서른두해째꾸마. 그해도 박꽃이 잘 폈재임둥. 떠나면서 제 각시 떠주는 랭수 한사발 마시구는 나머지 물을 박넝쿨에 부으면서 박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일이 잊혀 안지꾸마! 다시 오지 못하자구 그랬는지… 그 모습이 잊혀두 안지꾸마. …》

《죽으무나 잊혀지겠는가. 끄끄…》

《죽기 전에 얼굴 한번만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수꾸마!》

《후유ー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나 알아두 얼마나 좋겠수?!》

그 누가 들을세라 늙은 량주는 살붙이에 대한 그리움마저도 밤에만 토하셔야 했다.

그리움이 피는 밤, 필경 박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밤마다 피우신 그리움의 화신이리라!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혈육의 피, 그 무엇으

로도 끊을수 없는 육친의 정이다. 천리만리 떨어져있어도, 철조망이며 국경이 가로놓여있어도 박꽃은 해마다 피여나고 혈육의 정을 잇고있는 뉴대로 되고있다. 하기에 할머니는 해마다 박꽃을 피우셨고 언제나 박바가지만을 쓰셨다. 조선의 큰어머니도 해마다 박을 심으면서 남편과의 상봉을 고대하고계신단다.

하얀 수건을 하얀 머리에 두르고 꼬부라진 허리도 펴지 못하면서 담너머로, 강너머로, 산너머로 그리움을 날리면서 기다림에 지치신 할머니, 오늘은 흩어진 혈육의 정한이 서린 이 자리를 어머니가 할머니의 념원을 기리며 메우고 서계신다.

래일은 이 자리가 또한 나의 자리가 될것인가? 아서라!

하얀 박꽃이여, 어서어서 열매를 맺어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숙명의 완성을 위하여, 피맺힌 수난의 력사의 종지부를 찍는 혈육의 만남을 위하여…

【수필】

통일을 기다리는 족보

한 춘 옥(재중동포)

우리 집에는 100년도 넘게 몇대를 내려온 족보가 있다. 족보는 관향이 같은 씨족의 세계를 기록한 보첩이다.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족력사를 알게 하는 족보는 한 종족의 혈연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냈다.

우리 가족이 조선에서 연변에 베이징, 청도까지 무수히 이사를 하면서도 조상처럼 모시고 다닌 유일한 고물이 바로 족보이다. 한세기도 넘는 세월의 비바람속에서 이미 누렇게 가랑잎처럼 변색을 하고 손때가 묻었지만 어쩐지 족보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편안해진다.

조상의 기운이 흐르는 청주 한씨 족보는 나에게 신앙과도 같은 존재이다. 여기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많은 옛말이 담겨있다. 할아버지는 족보를 펼치

면서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긴 원한을 토로하고 항일에 목숨을 바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통일의 소망으로 위안을 얻으셨다.

족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언장과도 같은 존재이다. 할아버지는 기아에 허덕이다가 막내아들인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두만강 건너 중국에 왔다. 그외에 큰아들은 북에, 둘째아들은 남에 이렇게 온 가족이 산산이 흩어져 살면서 3년 농사하고 다시 모이자고 약속했다.

쪽박을 차고 두만강을 건너온 후 만주벌판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모른다.

아리랑고개 고개길에는 피눈물나는 가족이야기가 있다.

지척에 자식들을 두고도 만날수 없는 할아버지는 날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저 달을 보고있겠지?!…》라고 외워보며 생리별한 가족을 절절하게 그리였다. 할아버지는 평생 수염을 깎지 않고 하얗게 기르면서 할머니와 아들을 만날 때 깎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후 외세가 그어놓은 38°선의 철조망은 꽁꽁 막혀 열릴줄 몰랐다.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의 허리를 뭉텅 동강낸 분계선은 한겨레 혈육들을 생리별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품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했는지 모른다. 나의 할아버지도 기다림에 지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도 목마르게 기다리다가 가셨다.

가난해도 자식을 공부시키라고 할아버지는 가훈처럼 말씀하셨다. 북에 사는 큰아들, 장손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면서부터는 언젠가는 청주 한씨 대가족을 합류시키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쪽에 사는 둘째아들은 다시는 만날수 없게 되였다.

기다림의 징표인 하얀 수염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이제 통일되는 날 분계선에서 세 아들을 껴안고 대성통곡할거라던 할아버지는 끝내 땅이 꺼지는 긴긴 한숨소리만 남기고 저기 하늘나라로 가셨다.

통일소망의 바통을 받아쥔 아버지는 족보를 펼쳐놓고 할아버지의 하얀 수염이야기를 하고 또 하시며 그리움을 달래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통일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이 불효라며 안절부절하셨다.

할아버지가 통일을 갈망하면서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소망을 아들세대에 가서는 볼것이라던 통일의 종소리는 끝내 아버지세대에도 울리지 않았다.

10년전 아버지는 추석달을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바통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이제 너희 세대에 가서는 꼭 통일이 될것이라고 믿는 아버지의 그 진지한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하늘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하루속히 통일의 종소리를 들려주고싶다.

그 종소리는 기어이 울릴것이다.

통일의 종소리가 울리는 그날 나는 할아버지의 족보를 가슴에 안고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높이높이 웨칠것이다.

우리는 드디여 하나가 되였다고…

작품집 의 무

편 집 정 성 남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9월 28일
발 행 주체110(2021)년 9월 30일

ㄱ-1508ㄷ